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덴마크, 스웨덴)



- 기 간 : 2019. 9. 29. ~ 10. 7
- 방문국가 : 덴마크, 스웨덴
- 방 문 자 : 6명(의원 4명, 직원 2명)
 - 의원 : 유경선, 이경선, 차승연, 주이삭 의원
 - 직원 : 유주봉, 김은진 주무관

서대문구의회

목 차

I . 출장목적	1
II . 출장개요	2
- 출장단 임무	2
- 주요일정	3
III . 주요내용	4
- 1일차	4
- 2일차	5
- 3일차	23
- 4일차	37
- 5일차	52
- 6일차	61
- 7일차	73
- 8~9일차	78
IV . 기 타	79
V . 출장후기	81
붙임1 : 질의응답	93
붙임2 : 출장사진	98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덴마크, 스웨덴)

출 장 목 적



- ▷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에너지 정책, 교통정책, 쓰레기 정책 등 삶의 문제도 함께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수집
- ▷ 북유럽의 교육복지, 주거복지, 노인복지 등 우수사례 수집
- ▷ 북유럽 대학 연계 스타트업, 도시재생 연계 스타트업 등 각종 우수사례 수집



북유럽의 우수한 각종 사례를 조례 제정, 예산 심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우리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출장개요

- 기 간 : 2019. 9. 29.(일) ~ 10. 7.(월) 【7박 9일】
- 방문국가 : 덴마크, 스웨덴
- 방문도시 : 코펜하겐, 말뫼, 베아뢰스, 훔레베크
- 방 문 자 : 6명(의원 4명, 직원 2명)
 - 의 원 : 유정선, 이경선, 차승연, 주이삭 의원
 - 직 원 : 유주봉, 김은진 주무관

출장단 임무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분장
1	재정건설 위원회	위원장	유정선	- 공무국외출장 총괄 - 사회주택 분야(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자료조사
2	"	위 원	이경선	- 도시재생, 교육 분야(틸르 베아뢰스 스콜레, 덴마크 왕립도서관, 말뫼 시립도서관, 창업인큐베이터 ‘밍크’, 미디어에블루션) 자료 조사
3	"	위 원	차승연	- 도시재생 분야(말뫼 도시계획과, Bo01지구, 터닝 토르소, 말뫼대학교, 현대미술관) 자료 조사
4	행정복지 위원회	위 원	주이삭	- 도시재생, 복지 분야(코펜하겐시청,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스페르킬렌 공원, 니하운, 토로브할렌 시장) 자료 조사
5	의회 사무국	주무관	유주봉	- 기관섭외, 숙소, 교통편 등 일정 준비 및 진행 - 예산집행 및 정산
6	"	주무관	김은진	- 기관섭외, 숙소, 교통편 등 일정 준비 및 진행 - 사진촬영



주요 일정

일자	지 역	시 간	이 동	일 정
9.29(일) (1일차)	인 천 헬 싱 키 코펜하겐	10:20~ ~16:20 ~18:00	AY42 AY955 기 차	· 인천 출발 → 헬싱키 · 헬싱키 → 코펜하겐 공항 · 코펜하겐 공항 → 숙소
9.30(월) (2일차)	코펜하겐	전 일	도 보 수상버스 도 보 도 보 수상버스	☐ 현장견학 : 제미니 레지던스 ☐ 현장견학 : 어반리저 ☐ 현장견학 : 코펜하겐 빌리지 ☐ 현장견학 : 아마게르 바케 ☐ 현장견학 : 니하운
10.1(화) (3일차)	말 뢰	전 일	기 차 도 보 도 보 도 보 기 차	· 스웨덴 말뒀 도착 ☐ 현장견학 : 말뒀대학교 ☐ 현장견학 : 말뒀시립도서관 ☐ 현장견학 : 현대미술관 · 제1차 의원 간담회 개최 · 덴마크 도착
10.2(수) (4일차)	말 뢰	오 전 오 후	전용차량	■ 기관방문 : 말뒀시 도시계획과 ☐ 현장견학 : 창업인큐베이터 밍크 ☐ 현장견학 : 터닝 토르소 ☐ 현장견학 : Bo01지구
10.3(목) (5일차)	베아뢰스 홈레베크	오 전 오 후	전용차량	■ 기관방문 : 릴르 베아뢰스 공립학교 ■ 기관방문 :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10.4(금) (6일차)	코펜하겐	오 전 오 후	전용차량	· 제2차 의원 간담회 개최 ■ 기관방문 : 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 ■ 기관방문 :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10.5(토) (7일차)	코펜하겐	전 일	자 전 거 버 스 지 하 철	☐ 현장견학 : 아마게르 바케 ☐ 현장견학 : 토로브할렌 시장, 프리마켓 ☐ 현장견학 : 스페르킬렌 공원
10.6(일) (8일차)	코펜하겐	13:20	기 차 AY954 AY41	· 숙소 → 코펜하겐 공항 · 코펜하겐 → 헬싱키 · 헬싱키 → 인천
10.7(월) (9일차)	인 천	08:20		· 인천 도착



III

주요내용

9.29.(일) 주요일정 및 내용(1일차)

1.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동

	경로	편명	출발	도착	좌석
1	대한민국 인천 → 핀란드 헬싱키	AY042	9.29.(일) 10:20	9.29.(일) 13:55	ECONOMY
2	핀란드 헬싱키 → 덴마크 코펜하겐	AY955	9.29.(일) 15:40	9.29.(일) 16:20	ECONOMY

2. 코펜하겐 내 숙소로 이동

연번	방법	경로	소요시간	비고
1	기차	코펜하겐 국제공항역 (København Lufthavn Station) → 코펜하겐 중앙역 (Copenhagen Central Station)	45분	
2	도보	코펜하겐 중앙역 (Copenhagen Central Station) → 숙소(First Hotel Mayfair)	15분	

3. 현장사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타기 전	코펜하겐 공항에서 숙소 가는 기차안	코펜하겐 중앙역 앞



9.30.(월) 주요일정 및 내용(2일차)

제미니 레지던스(Gemini Residence)

도시재생

- 위 치 : 2300 K øbenhavn,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9. 30.(월) 10:30 ~ 11:00
- 이동방법 : 도보(호텔 → 제미니 레지던스)

1. 개 요¹⁾

제미니 레지던스는 곡물 저장고였던 사일로²⁾를 재활용한 8층 규모의 아파트이다.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곡물저장고가 폐쇄되었고, 이후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주거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일로의 외관을 보존하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졌다. 테라스를 중요시하는 덴마크 사람들에게 맞춰 통유리로 된 창문뿐만 아니라 주변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괴리되지 않고 근처의 여러 기업 사옥, 쇼핑몰, 주거 단지와 조화를 이룬다. 이는 도시 재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 개체가 지니는 특징과 개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에서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너지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미니 레지던스 건설이 단순한 재활용이었다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있어 주거의 편리성을 높였고, 여러 주거단지에 근접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으며, 주변 경관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조건들이 곡물 저장고가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터넷 경제신문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2>

2) 시멘트, 자갈, 광석, 곡물 등의 입체물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다량으로 저장하는 세로형의 건조물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사일로를 그대로 두고 건축하여 아파트의 폐쇄된 단점을 보완하고 실내외 오픈 공간이 매력적이다. 주민들과 단절된 공간을 공유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신주택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경선 의원

○ 첫 느낌은 “발상의 전환”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 건축문화자산 보전 관리
- 가로공간 활용

건축문화자산을 보전하였고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을 건설하고 주변의 수변 공간 재개발 등 새로운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또한,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유치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변 저층아파트와 문화적 환경과의 조화 등 만족도는 높으나, 주로 젊은층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홍제동에 있는 유진상가에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건축, 건설 디자인 그리고 공간 배율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 보았다.

차승연 의원

‘제미니 레지던스’는 두개의 곡물 저장고를 주거공간으로 되살린 곳(원통형 구조물이 그대로 주거공간으로 거듭남)이다. 강 옆에 자리하고 있어 전망이 좋고, 중앙역 및 수상택시 정류소 등이 가까워 교통도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위치에 있던 곡물 저장고를 없애지 않고, 아파트로 만들어서 코펜하겐의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특히 형태를 심하게 왜



곡하지 않고, 원형의 곡물 저장고 벽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곡물이 저장되었던 공간은 중정처럼 비워두었으며, 밖으로는 베란다를 내어 공간의 답답함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전립 목적을 다한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짓는 방식이 아닌 지역에 어울리도록 활용한 부분은 서대문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대문구에 그런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주민들과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이삭 의원

곡물 저장고였던 사일로가 시대가 변하면서 더 이상 기존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이 가진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코펜하겐의 가장 주된 현안은 도시 안에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른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도시의 기능을 재건하는데 있어 어떤 현안에 봉착해있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로 원주민은 쫓겨나가고, 높아진 월세에 더 어려운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상황을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내 역사적인 건축물 또는 오래되었지만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었다.

3. 현장사진





어반 리저(Urban Rigger)
코펜하겐 빌리지(CPH Village)
레펜(Reffen)

주거복지

도시재생

○ 위 치

연번	방문지	위 치
1	어 반 리 저	Refshalevej, 1432 Refshale ø en, 덴마크
2	코펜하겐 빌리지	Refshalevej 161f, 1432 K ø benhavn, 덴마크
3	레 펜	Refshalevej 167, 1432 K ø benhavn, 덴마크

○ 방문일시 및 이동방법

연번	방문일시	이 동	이동방법
1	9. 30.(월) 11:30~11:50	제미니 레지던스 → 어반 리저	수상버스
2	9. 30.(월) 12:00~12:20	어반리저 → 코펜하겐 빌리지	도 보
3	9. 30.(월) 12:20~13:20	코펜하겐 빌리지 → 레 펜	도 보

1. 개 요

○ 어반리저(Urban Rigger)³⁾

어반 리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 저렴한 학생 주거 시설을 제공하려고 탄생했다. 콘크리트로 부유물을 만들어 물에 띄우고, 그 위에 제 역할을 다 한 화물 컨테이너 6개동을 별 모양으로 쌓아 거주 공간으로 활용한다.

어반 리저 한 동에는 12명이 산다. 한 층에 3개동씩 2층으로 쌓은 컨테이너 6개동에 원룸 12실을 마련했다. 개인 공간은 24~27㎡(7~8평)에 불과하지만 옥상 정원과 1층 정원을 비롯한 공용 공간을 445㎡ 규모로 확보해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입주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공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무게가 550톤이라 태풍이 와도 좌초되지 않지만, 물 위에 떠 있기에 예인선으로 끌고 건물재 이사할 수 있다.

3) NAKED DENMARK <http://nakeddenmark.com/archives/10510/amp>



어반 리저가 코펜하겐에서 탄생한 이유는 코펜하겐이 주거지를 확보하는 속도가 인구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펜하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2만 2천명이지만 이 중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는 1만 명뿐이다. 나머지는 수도권 혹은 스웨덴 말뫼에서 통학한다.

어반 리저는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삼았다. 유학생에게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폐컨테이너 사용, 바다·태양광 에너지 사용, 우수 단열재 사용 등 첨단기술과 업사이클이 만나 주거공간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 코펜하겐 빌리지(CPH Village)⁴⁾

거주 문제로 고민하던 프레데리크 부스크와 미샤엘 플레스네르는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가혹하기만 한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의 기발한 발상으로 낙후한 항만 지역에 방치된 차가운 컨테이너는 온기가 도는 집이 되었다. 바로 코펜하겐 빌리지다. 이곳의 입주자들은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만든 집에서 독립된 각자의 방과 부엌을 가지고 있고, 욕실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쓴다. 빌리지 안에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비롯해 다른 입주자와 교류할 수 있는 카페나 텃밭 같은 여러 공간이 있다. 이곳은 말하자면 레고 블록 같은 곳이다. 컨테이너로 지은 집은 변형과 재배치가 손쉽고 이동이 편리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임새를 바꿀 수 있다.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은 코펜하겐 빌리지는 입주에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학생만 받는다.

○ 레펜(Reffen)⁵⁾

레펜이 있던 곳은 원래 조선소가 있었다. 코펜하겐 스트리트 푸드팀이 공장 지대를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각 컨테이너 부스를 이끌며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즐길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스트리트 푸드를 한데 모아놓은 이유도 이 때문일 터. 아프리카, 일본, 한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이 있고, 시즌에 따라 메뉴가 바뀐다.

4) 다음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725115113200?f=o>

5) <https://www.elle.co.kr/article/20891>



레펜의 백미는 컨테이너에서 즐기는 스트리트 푸드다. 컨테이너 박스와 천막 사이로 세계 각국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뒤로는 바다가 보이는데, 현지인도 많고, 관광객도 많다. 해 먹에 누워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를 달리다 맥주 한 잔 하며 숨을 돌리는 이들도 있다. 자유로운 거리와 사람, 음식과 술, 음악까지 다 갖춘 낭만적인 스트리트 푸드 마켓이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계약 기간 2년, 약 70만원의 임차료로 대학생을 위한 주택인 코펜하겐 빌리지는 다른 코펜하겐의 주택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사이에 공유생활 공간이 있고 5평의 한계를 중정으로 극복하였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도 높은 임대료로 대학생들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투리땅도 거의 없는 우리 실정상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주택은 우리구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경선 의원

○ 어반리저(Urban Rigger)

폐컨테이너가 젊은 이들의 니즈에 맞게 주거 공간으로 구성됨이 재미있었다. 코펜하겐의 주거 형태가 거의 가운데 중정이 있는 가로 주택의 형태인 듯. 이곳도 1층 정원을 중심으로 공용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여 거주 공간이 구성되었다.

거주하는 공간까지 세밀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잠시 들어다 본 개인 공간은 비록 7~8평에 불과하지만 가로로 구성된 형태로 바다가 보여 답답해 보이지 않았으며, 전혀 좁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서대문구에도 대학이 많기 때문에 상경하는 학생들이 많다. 지방에 비해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집안의 지원 없이는 자취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록 개인 공간은 적지만 공용 공간을 늘려 공동체 일원으로 유도하고 좁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서대문구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 코펜하겐 빌리지(CPH Village)

폐콘테이너를 재활용해 주택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여 빈 땅에 생기와 가치를 불어넣은 프로젝트이다.

자유로운 주거형태에 좀 히피적이고, 팝아트적인 개개인의 공간 연출 등이 무척 개방적으로 보였다.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대학생만 거주 한다고 하는데 월세에 대한 부담 또는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은 있었으나 확인을 못함이 좀 아쉬웠다.

이 곳 또한 복도사이 공간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으며, 각방은 통유리로 설계되어 있어 5평 정도의 개인 공간이 개인 취향대로 연출하여 개성있고 좁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주변 환경을 보면서 교통 이용은 어떨까?’ 생각을 했다. 밤에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서대문구처럼 안전도우미가 운영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월 70만원이 싸지 않아 보이지만 네스티드에 따르면 코펜하겐에서 혼자 집을 빌려 살려면 한 달에 795파운드(113만5200원)의 임대료가 든다고 한다. 약 30%가량 저렴한 것. 컨테이너로 지음으로써 변화가 쉽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주거시설보다는 문화시설이나 창업센터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올 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한국은 사계가 뚜렷해 컨테이너를 주거로 쓰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볼 좋을 듯하다.



차승연 의원

○ 어반리저(Urban Rigger)

코펜하겐을 관통하는 강 위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배를 이용한 다른 주거시설도 있어, 덴마크 기후환경에는 수상주택도 큰 무리는 없어 보였다. 공공사회주택 정책이 있지만, 코펜하겐은 유럽에서도 물가가 비싼 곳이라 부득이하게 강 위에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생각된다.

3개면으로 컨테이너를 쌓았고, 가운데는 정원처럼 입주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있었다. 공사 중에 살짝 들어가 본 곳은 원룸처럼 되어 있었으나, 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화장실과 주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창이 널찍하게 나있었다.

서울시나 서대문구도 청년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의 좁은 평수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어반 리저’ 같은 평수라도 실용적이고, 좁지 않은 느낌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중앙 정원처럼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개별 룸을 벗어나는 공간 확대를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코펜하겐 빌리지(CPH Village)

어반 리저처럼 코펜하겐 빌리지도 컨테이너로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어반 리저가 물 위의 컨테이너 주택이라면, 코펜하겐 빌리지는 땅 위의 컨테이너 주택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역시 탁 트인 창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코펜하겐 건축물의 핵심이라고 느껴지는 중정이 있었다.

코펜하겐 빌리지 주변에 어반 리저, 레펜이 함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조선소 주변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컨테이너 주거지 주변은 정돈되지 않고, 황폐한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었을 때, 치안이 걱정된 면도 있지만, 이런 공간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으로 보이기도 했다. 어반 리저나 코펜하겐 빌리지는 코펜하겐의 주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고, 주로 거주하는 사람은 학생,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레펜은 청년문화의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컨테이너 주택은 새로운 발상이라 그 부분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트렌드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일종의 버려진 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되돌아 볼 문제인 듯하다. 반면 버려진, 황폐화된 조선소, 공장지대 주변을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의 측면에선 눈여겨 볼 장소였다.

○ 레펜(Reffen)

레펜 홈페이지 소개에 ‘공동 창작, 혁신, 음식 및 창의성을 위한 도시 공간이며, 북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길거리 음식 시장’으로 되어 있다. 겨울에 운영하지 않지만, 다행히 문을 닫지 않은 시기라 음식을 주문해서 맛볼 수 있었다. 점심에 가니 준비 중이거나, 문을 열지 않은 곳도 있었다. 레펜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름밤에 왔으면 레펜의 진면목을 느꼈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이 모여 있는 스트리트 푸드마켓인데 역시 물가가 비싼 코펜하겐 명성처럼 한국에서 먹는 길거리 음식과는 가격이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도 자유로움이 곳곳에 묻어났고, 늘 축제가 열리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신촌 박스퀘어와 비교해보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이고, 먹거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신촌 박스퀘어는 왕래가 많은 대학가와 기차역 앞이기에 깔끔하게 정비된 느낌이라면, 문 닫은 조선소 옆에 만들어진 레펜은 자유롭게 널브러진 공간이다. 물론 면적도 훨씬 넓긴 하다. 신촌 박스퀘어를 굳이 더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청년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형성’보다는 ‘자유로움’을 탑재하는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신촌 박스퀘어에 대한 고민은 레펜에서 본 것 뿐만 아니라, 스웨덴 말뫼 대학 주변에서 만난 살루홀(Malmö Saluhall), 코펜하겐 토르브할렌 시장(Torvehallerne)을 다니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북가좌2동에 있는 일명 ‘풍원시장’을 레펜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면 북가좌2동 도시재생의 중심지로써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문화마켓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주이삭 의원

과거엔 항만이었던 레프스할레외엔(Refshale øen). 이 땅이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 상황에서 코펜하겐시는 ‘코펜하겐 빌리지’를 만들어 도시에서 공부 등 이유로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집을 지으면 저렇게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1인 청년이 각자의 공간을 향유하면서도 각 공간들의 중간지대에는 입주한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간까지 구성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인 세대가 급격히 늘어난 현재시점에서 1인세대가 모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삼한사온이 뚜렷한 우리나라와 달리 이 나라의 기온변화는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정책이 가능했으리라 보았다.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각자 자신의 개성으로 표현한 우편함에 들어오도록 설치해둔 것도 인상적인 디테일함이었다. 여기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장에 우편함이 자연스레 나열되어있었다. 우편함은 문 앞에, 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집 뒤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두는 우리 생활과 달리 쓰레기와 우편함을 같이 두고 있는 점도 이 나라 국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처리에 당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양한 사이즈의 쓰레기수거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집 앞, 또는 현관 쪽에 배치할 수 있게끔 하면 악취에서 벗어나고 미관 상 더 나은 방향이 될지도.)

코펜하겐 빌리지와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레펜’이란 스트리트푸드 골목은 과거 버려진 조선소였다. 40개 이상 되는 길거리음식 점포가 한 데 모여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힙’하고 ‘핫’한 공간, 여행객들이 꼭 찾아야 하는 맛집만 모여 있는 장소로 유명해진 것이다. (한국음식만 빼고) 전 세계 음식이 모여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공간에 대한 관리가 다양한 음식점을 배치함으로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이른 점심을 이곳에서 먹었는데, 비가 온 날이라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음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젊은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니, 산업동력이 사라진 장소에 새 숨이 불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신촌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은 연세로 메인거리에 임대료가 높은 공간은 빈공간 혹은 새로 교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은 골목 깊숙한 곳에서 문을 열고 있다. 신촌기차역 앞 박스퀘어도 만들어진 과정과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레펜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되었고, 앞으로 어떤 음식을 배치하고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 되리라 생각된다. 영천시장이 있는 천연동, 서대문역 맞골목과 충정로역 9번 출구 일대인 충현동, 아현역 주변 북아현동도 이러한 활력이 있는 상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봤다. 방법은 더 연구해야겠지만.

3. 현장사진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

도시재생

- 위 치 : Vindmøllevej 6, 2300, København,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9. 30.(월) 13:50 ~ 14:20
- 이동방법 : 도보(레펜 → 아마게르 바케)
- ※ 2019. 10. 5.(토) 11:30~12:10 재방문
- 이동방법 : 자전거(호텔→ 아마게르 바케)

1. 개요⁶⁾

발전소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쓰레기를 태워 전기와 온수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터. 그런데 발전소를 도리어 관광 명소로 바꾼 곳이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다.

아마게르자원센터(ARC·Amager Resource Center)는 40년이 지나 한계 수명이 임박한 열병합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했다. 부지와 시설, 규모는 확정된 상태. 문제는 디자인이었다.

여러 건축회사에서 다양한 설계안이 들어왔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제안이 있었으니, 도전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비야케 잉겔스 그룹(BIG·Bjarke Ingels Group)의 작품이었다. 발전소 여러 동을 한 동으로 키 순서로 이어 붙이고 그 위에 스키 슬로프를 얹었다.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힐(Copenhill)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너비 200미터, 높이 85미터에 거대한 미끄럼틀을 닮은 독특한 형태와 시민 친화적 용도 덕분이다. 산 하나 없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발전소 건물을 인공 산(hill)으로 선물했다. 건물 위에 경사로를 얹어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알파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 슬로프를 마련했다. 덴마크에서는 매년 53만 명이 스키를 타러 스웨덴, 노르웨이, 알프스 등으로 떠난다. 아마게르 바케는 덴마크에 첫 스키 슬로프를 선사한다. 경사도에 따라 네 단계로 코스를 나눈다. 가장 아래인 초보용 녹색 코스는 14~18%로 완만한 반면, 전문

6) <http://nakeddenmark.com/archives/10578>



가용 검은색 코스는 최대 경사도가 45%에 달한다. 스키 슬로프에는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특수 마감재를 설치한다.

85미터 높이 북쪽 수직 벽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암벽으로 꾸민다. 10미터 폭인공 암벽에는 진짜 산처럼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해 실제 암벽을 오르듯 즐길 수 있다.

스키나 암벽 등반을 못 한다고 산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다. 스키 슬로프 옆에는 3천 제곱미터 녹지(tagparken)를 확보해 역시 덴마크에서 유일한 등산로를 조성한다.

아마게르 바케 꼭대기에는 유해 가스 대신 수증기 고리를 만들어 뿜는 125미터 높이 굴뚝이 있다. 그 아래에 코펜하겐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카페가 자리 잡는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열병합발전소 에너지를 거주지에 공급하고 덴마크에 없는 스키장 등을 건물 옥상에 만들어 친환경 건축물의 모범사례다. 레저 공간, 복합 문화 공간을 극대화한 사례로 우리구 난지 음식물류 쓰레기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도 친환경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협오시설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건축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경선 의원

독특한 외형 때문에 더 주목받지만 사실 아마게르 바케는 쓰레기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만드는 열병합발전소이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열병합발전소. 오픈 준비중이라 내부를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다.

잠시 준비 사무실에 들어가 차 한잔을 하며, 추후 방문객 접수를 받는 공간을



보니 에너지 관련 자료와 특히, 쓰레기가 다시 재생되어 일상생활 용품으로 재생되어지는 물건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표현됨이 인상적이었다. 아마게르 바케 앞에 있는 아파트에 열 공급이 가능한지가 궁금했다.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열병합 발전소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다. 하지만 이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이 팽배한 대한민국에서는 설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문화시설로 탈바꿈 시켜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발상 : 날씨는 스키를 타기 최적인데, 구릉지나 산이 없는 덴마크에 직접 산을 만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옥상의 인조 잔디 스키장.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승연 의원

열병합발전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건물 옥상에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평지인 코펜하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코펜하겐 도시재생의 가장 큰 상징이 아닐까 싶었다.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옥상은 토요일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다시 방문하였다.

말뚝의 도시재생 시그니처 건물이 ‘터닝 토르소’ 라면 코펜하겐 도시재생의 시그니처는 ‘아마게르 바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높은 산이 고작 170m인 코펜하겐은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코펜하겐에 열병합발전소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된 지금의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열병합발전소를 관광지로 변모시켜 버린 아이디어는 놀랍다. 스키를 타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코펜하겐 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인 아마게르 바케 옥상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코펜하겐에 온 첫날 방문 시 주말 첫 개장을 한다는 소식에 너무 아쉬웠다. 다시 방문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전거로 코펜하겐을 둘러보자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져서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개장 첫날이라 아우디 신차, 삼성 새 핸드폰, 스키용품 등 광장은 프로모션이 한창이었고, 첫 방문 시 용도에 대해 설왕설래 했던 곳은 아이들 미끄럼 이용시설이 되어 있었다.

아마게르 바케 옆으로 사람들 동선을 따라 가니 그곳에 신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스키하면 당연히 눈 위에서 탈 걸로 생각하고, 인공 눈을 빨리도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아마게르 바케 스키장은 풀 위에서 즐기는 곳이다. 정상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다. 속도도 빨랐지만 무엇보다도 무료였다. 개장 첫날이어서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게르 바케는 설계할 때부터 공공성을 강조해서다.

상암동의 쓰레기장이 근사한 공원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했지만, 발전소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키장이라는 관광지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다. 더구나 역사적인 개장 첫날에 갈 수 있어서 굉장히 흥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아마게르 바케의 내부였다. 그대로 발전시설은 가동을 하는 것이었다. 코펜하겐도 탄소제로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서 열병합발전시설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요즘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난지음식물쓰레기장이나, 은평구가 추진 중인 광역 자원순환센터도 아마게르 바케와 같은 발상의 전환과 본기능을 수행하면서 친환경을 강조한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주이삭 의원

쓰레기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 윗 공간에서 알파인스키란 스포츠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 스키를 타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된 이동수단은 크게 엘리베이터, 리프트, 계단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 내부 열병합발전소 모습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도시공간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출장 2일째에 아마게르 바케를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처음 갔을 때는 알파인스키장이 오픈되어있지 않아 입장할 수 없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닌 출장 7일째인 토요일에 오픈(공식은 금요일, 실제로는 토요일에 오픈)을 하면서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이란 도시가 전부 평지인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평지였을까 싶었다. 마치 서대문구에서 봉수대에 올라 서울 전역을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처음으로 코펜하겐에서 높은 공간에 올라왔다는 감각을 느꼈다. 쓰레기 소각장 옆에서 다양한 길거리음식점은 물론 아우디, 삼성 등 대기업이 프로모션을 하러 출장을 나온 모습도 특이했다. 이전처럼 단순 소각장만 존재했다면, 코펜하겐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레프스할레외엔에 이런 프로모션 행사가 있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어 유인을 하면 이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3. 현장사진





니하운(Nyhavn)

도시재생

- 위 치 : K ø benhavn K,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9. 30.(월) 16:20 ~ 16:40
- 이동방법 : 도보, 수상버스(아마게르 바케 → 니하운)

1. 개 요

니하운은 1670년부터 1675년까지 크리스티안 5세에 의해 건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스웨덴 전쟁 포로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니하운은 콩엔스 뉘토르브 광장과 바다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많은 화물선들과 어선들이 이곳에 기항했다. 또한 맥주, 어부, 매춘으로 악명높았던 곳이기도 하다. 1845년부터 1864년까지 안데르센이 이 곳에 거주하기도 했다. 니하운과 연결된 최초의 다리는 1875년 2월 6일에 개통된 목조 인도교이다. 이 다리는 1912년에 현재의 다리로 대체되었다.

니하운 안에는 부두, 운하, 오락 지대가 들어서 있다. 부두로 사용되고 있는 수로에는 수많은 요트와 관광선이 오간다. 니하운 북쪽에는 나무, 벽돌, 석회로 만든形形色색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과거 항구 노동자들의 도시에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모한 도시재생 사례이다.

2. 시 사 점

차승연 의원

덴마크 코펜하겐하면 인어공주 동상과 니하운을 빼놓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가면 크게 실망하는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한다. 물론 니하운은 색깔이 예쁘게 입혀진 건물과 항구에 정박한 배, 잘 꾸며진 카페가 어우러진 멋진 거리였다. 한국의 선창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바다 내음이나, 지저분한 거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러한 부분이 니하운에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관광명소로 확실히 탈바꿈한 모습이였다. 코펜하겐의 도시재생에서 느끼는 건, 옛 조선소, 공장, 발전소, 곡물저장소, 선창 등을 부스거나 하지 않고, 새롭게 도시의 명소로 바꾸고, 생활의 공간으로 스며들게 했다는 점이다.



주이삭 의원

예쁜 항구라는 지역자원과 아름다운 색감의 건물이 눈길을 끈다.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풍경을 찍는다. 그렇게 과거 술집거리였던 니하운이 멋진 테라스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예쁜 장소로 바뀌어 꼭 한번 와야 하는 장소로 되었다. 이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는 간단한 논리가 니하운의 매력이 아니었을까.

다만, 폼하하고 싶진 않지만 배운 것이 그리 많진 않았다. 단지 도시 속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 번 보고 마는 수준이라 느꼈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단순 페인트칠 등의 관리만으로도 조금의 변화를 이룰만한 공간이 어딜까 생각해본 곳이 바로 천연동이었다. 칙칙한 붉은 벽돌로 가득 있는 천연동 저층주거지에 색감이 입혀진다면..? 이를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만들어갈 때 천연동 내의 주민들 간 유대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충현천 연도시재생의 흐름은 어디로 갈지 궁금해졌다.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니하운에 있는 가게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였을 경우 강남 한복판 수준 아니었을까. 니하운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이 단순 저층주거지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정책임을 주민분들이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 같다.

3. 현장사진





10.1.(화) 주요일정 및 내용(3일차)

말뫼대학교(Malmö University)

교 육

- 위 치 : Nordenskiöldsgatan 1, 211 19 Malmö, 스웨덴
- 방문일시 : 2019. 10. 1.(화) 10:30 ~ 12:00
- 이동방법 : 도보, 기차(덴마크 호텔 → 스웨덴 말뫼대학교)

1. 개 요

도심 한가운데 말뫼 대학을 세웠다.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를 만들었다. 친환경 분야 우수한 연구에 수여하는 상을 제정했고, 터닝 토르소 주위의 100%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도 2001년부터 시작했다. 그러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말뫼로 모여들었다. 이어서 생명공학, IT, 미디어 등 신산업 전문가들도 들어왔다. 리팔루 전 시장은 “말뫼 대학은 기존 연구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신진 연구자들로 교수진을 구성했고, 전공을 넘어선 협업이 자유롭도록 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새로 떠오르는 산업의 연구자들이 말뫼 대학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구하러 온 전문가들이 말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 사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공부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신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뫼 시는 이들을 위해서 도시를 정비하고, 사회안전망을 잘 다듬어 나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다양한 스터디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소화기의



위치, 크기, 표시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나 스타트업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건축물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말피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건설하였는데 좋은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에서도 다방면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다.

이경선 의원

친환경도시 프로젝트 성공사례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곳 말피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반발하는 소수의 시민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진 모델이었다.

쇠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이 전략적으로 설립한 대학으로 도시와 광역권, 그리고 초광역권 차원에서 대학의 다양한 역할이 지역의 성공적인 전환에 기여했다고 본다.

말피대학으로 인하여, 6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으며, 친환경 주거단지까지 형성됨에 친환경과 다양한 첨단기술 산업이 도시재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도시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음에 다시금 도시재생의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본다.

학교의 내부는 물론 우리나라 스타트업 공간과 다소 다르지만 이곳은 공간 구성이나 내부 설계 등이 철저하게 이용자 위주의 눈높이로 구성되었음을 느꼈다. 가운데 공간은 다함께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개개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불편함이 없게 디자인 되어졌으며, 도로변 또는 길 쪽엔 강의실을 배치하고, 중정을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고 간단하게 티타임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치된 공간들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가구와 건물 내벽의 컬러 또한 안정감 있는 색채 구성으로 기존의 캠퍼스 공간의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기업의 회의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곳 사람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개인 의자를 산다고 하는데 이곳 의자 또한 멋지고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 또한 볼거리였으며 참 안락한 의자들이었다.



차승연 의원

말뫼대학교는 말뫼 도시재생의 핵심공간이며, 도시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차를 타고 외레순 대교를 건너 약 20분 정도면 닿는 곳이 스웨덴 말뫼다. 그래서 나라는 다르지만 말뫼는 코펜하겐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두 도시는 더 가까워진다고 한다. 그래도 사용하는 언어와 화폐단위는 달랐다.

말뫼는 ‘말뫼의 눈물’ 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때 조선업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말뫼는 조선업이 쇠퇴하게 되자, 선박 건조에 사용하던 크레인을 한국에 팔았고, 이 초대형 크레인을 해체하는 걸 생중계로 전 국민이 봤다고 한다. 이후 말뫼는 다시금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말뫼대학을 세웠다. 그래서 말뫼대학은 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말뫼 중앙역과 일부러 가까운 곳에 세웠다고 한다. 또한 말뫼와 가까운 곳인 ‘룬드’ 라고 하는 곳에 큰 대학이 있었음에도, 말뫼대학을 세워 도시재생, IT 등을 배우고, 연구하는 청년들이 모여들도록 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뫼대학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말뫼대학은 말뫼의 도시재생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를 통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말뫼대학은 그야말로 말뫼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자, 도시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관내 대학은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변화, 발전을 위해 관계를 더 높여나가야 함을 말뫼에서 더욱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말뫼대학은 한국의 캠퍼스처럼 넓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수도 있지만, 정말 깨끗했다. 학생들이 곳곳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의실 밖은 복도, 공유공간이라도 커다란 도서관처럼 느껴졌다.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싶었지만, 짧은 영어로 접근하기는 용기가 나진 않았다. 그래도 구내 서점에서 크게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서로 대화가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말뫼대학을 나와 식사를 위해 간 곳은 ‘살루홀(SALUHALL)’ 이라는 푸드 코트였다. 창고를 개조한 것으로 보였는데, 창고 안과 밖을 조화롭게 이용하



였다. 1층에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점포와 식탁이 있었고, 2층은 식탁만 있었다. 분위기도 좋았지만, 맛도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피대 학생들과 근처 직장인들이 모여들어서인지 젊은 에너지가 넘쳤다. 쓸모없는 창고였지만, 푸드코트로 변모시킨 공간을 보면서 신촌 박스퀘어가 생각났다. 외형은 박스퀘어보다 불품없을 수 있지만, 안은 더 활기차고, 분위기 있었다. 레펜, 살루홀, 토르브할렌 시장 등 신촌 박스퀘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이는 곳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박스퀘어 활성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걸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이삭 의원

말피에서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말피대학교다. 통근열차인 S-트레인을 타고 코펜하겐중앙역에서 말피역에 도착하자마자 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말피대학교. 말피시가 가져온 생각의 집약지가 바로 ‘대학교’에 있다고 느껴졌다.

말피가 조선업이 망하고 말피의 미래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추진한 혁신산업 육성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정책이 말피대학교라고 한다. 전통적인 공업 도시에서 지식기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역시 교육이었던 것이다. 또한 말피대학교에서 졸업한 우수인재가 말피에 정착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로드맵을 구상했다. 다음 날 갈 밉크 등 창업을 보조하는 곳이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대학교 관계자와 특별히 대화를 나누진 않고 다음 날인 수요일 말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이야기할 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우선 대학교 강의건물에 들어서서 처음 느낀 것은 ‘아직 새 건물 냄새가 나는 공간이구나’였다. 건물의 형태는 1층부터 가장 꼭대기 층까지 한 공간으로 뚫려있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면 이진아기념도서관 형태를 띠는 셈이다. 각 층 중앙에는 복도와 다른 층으로 연결하는 계단,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까지 구성되어있었으며, 외곽 부분에는 강의실이 연이어 있었다.

말피대학교의 핵심콘텐츠를 확인하기 전에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소화기 표시의 위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어느 시설에든지 배치된 소화기 바로 위에 붉은 색의 ‘소화기’ 문구가 적힌 표지가 작게 붙어있다. 대략 사람



무릎 정도 높이에 말이다. 하지만 이곳 소화기 표시는 바닥에 가까이 있는 것은 물론, 성인 평균 눈높이에 딱 맞는 높이에 소화기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 소방·안전에 더욱 민감한 생활속 정책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다.

실내 개인스터디 공간은 모든 좌석마다 멀티탭과 USB선을 연결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있었다. 공부환경 면에서 방해될 만한 것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티가 났다. 어디서나 앉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걷고 다닐 수 있는 실내공간 조성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쓰레기통이 참 인상적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종이/캔·플라스틱/일반’ 식으로 각각의 커대한 통을 연달아 배치하는 모습이라면, 이 말피대학교 쓰레기통은 평소 공원에서 보는 원기둥 형태 쓰레기통에 3개의 투입구마다 ‘papper(종이)/burkar(캔)/övrigt(기타)’로 구성하여 공간활용과 분리수거를 동시에 잡아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피시립도서관을 향하러 나오자마자 말피대학교 바로 앞에 ‘말피 살루홀(Saluhall, 일종의 농산물시장)’을 발견했다. 그냥저냥 있는 창고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자연스레 발을 들였다. 말피 학생들과 주변에서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시장 안 음식점을 찾아 요리를 먹고 있었고,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일종의 연어회덮밥을 먹었는데, 덴마크 음식과 달리 날림 쌀이 아니어서 대만족! 코펜하겐의 레펜이 코펜하겐 중심시가지에서 좀 멀고 청년들의 주거지 주변에 지은 힙한 장소라면, 말피의 살루홀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완벽한 먹거리 도시재생을 위한 일을 해낸 것이다. 왜 나는 계속 영천시장이 생각났을까. 영천시장의 변화를 위해 시장상인들과 살루홀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의 역할과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현장사진





말뫼 시립도서관(Malmö stadsbibliotek)

교 육

- 위 치 : Kung Oscars väg 11, 211 33 Malmö, 스웨덴
- 방문일시 : 2019. 10. 1.(화) 13:00 ~ 14:00
- 이동방법 : 도보(말뫼대학교 → 말뫼 시립도서관)

1. 개 요

말뫼 시립도서관은 각기 다른 형태의 세 건물이 이루어졌다. 16세기 르네상스식 성 건물인 “캐슬 (Castle)”, 정사각형으로 간단히 스퀘어라 불리는 빛의 달력(Calendar of light), 그리고 이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한 원기둥의 실린더(cylinder). 캐슬은 1905년 개관, 빛의 달력은 1997년 개관, 캐슬은 새 건물의 신축과 더불어 재보수 작업을 거치며 1999년 재개관하였다.

예전에는 책장으로 가득한 전문서적실과 정기간행물실 뿐이었지만 이제는 개인 스터디 공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라센트럼(LärCentrum)이라는 비공식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의 행사를 위한 작은 무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흔히 10대 청소년이라 불리는 13~19세, 7세 이하 어린이 사이에 끼었다는 뜻으로 ‘Tween’ 세대를 위한 공간, 싱크대가 있는 공간, 미술활동 공간, 편안한 독서 공간, 음악실이 있고 어린이들이 제안한 도서 분류체계로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모든 계층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열람실과 도서가 배치되어 있었다. 전세계 도서를 비치하였으나 우리나라 도서는 빈약한 편이었다. 신문을 읽으러 온 주민이 인상적이었고 반려전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 미디어가 다양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닌 모든 연령의 사람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가재울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경선 의원

애초 미술관 목적으로 디자인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었음

예전에는 책장으로 가득한 전문서적실과 정기간행물실뿐이었지만 이제는 개인 스터디 공간,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라센트럼이라는 비공식 교육 기관 그리고 지역의 행사를 위한 작은 무대 등이 추가되어 있었다.

특히, 반려전 보관소 분리 되어 있었고, 기존의 도서관 틀이 아닌 누구나 편히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도서관이었었다.

스웨덴은 겨울이 길고 비도 자주 내리고 춥기 때문에 도서관 전체를 전면 유리창으로 만들어 실내를 밝게 만들고 기능적으로도 햇살이 들어와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다.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은 형태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실용성 또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측면과 정면의 통유리로 들어오는 자연채광으로 안락감을 주고 시간을 알려주는 지표로도 가능하다. 책을 보다 피곤해진 눈을 잠시 돌려보면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의 풍경에 눈의 피로를 씻을 수 있다는 착안인 듯하다. 딱딱한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닌 마치 공원에 앉아있는 느낌이랄까? 책을 읽는다 하면 지루한 느낌이 나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듯한 공간에서 책을 읽다 보니 그 자체로 힐링이 되고 독서가 좀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저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아닌 영화, 비디오, 음악CD를 빌려주는 점이 신선했고 이런 시스템이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딱딱한 도서관이 아닌 문화공유공간으로써의 느낌을 받게 되었다.

차승연 의원

말피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남녀노소, 세대를 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과 달리 아이들 등하교를 남성들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아이들과 도서관에 온 아빠



들이 많았다. 아이들 도서관 입구에는 유모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문도 있어 도서관을 놀이공간처럼 접근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 아이들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재밌고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아서 그 자체가 아이들 창의성을 높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곳도 있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도서관이 공원 옆에 있어 시야가 탁 트이도록 통유리로 만든 것도 독특하게 보였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이 너무 예뻐다. 그리고 메인 공간은 천장을 터서 책에 둘러싸인 답답함이 없었다. 평일 낮임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편하게 책을 봤다. 책도 책이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영화, 음악 등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말피 시립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느끼게 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 때문이었다. 요리를 하는 곳도 있고, 드럼과 같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물론 이어폰을 써야하지만, 도서관과 악기는 정말 생소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가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말피 시립도서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말피’를 위한 공간이었다. 도시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지도와 관련 책을 모아놓은 곳이다. 가재울에 만들어질 도서관은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서부지역 거점 도서관이지만, ‘서대문’을 위한 혹은 ‘서대문, 마포, 은평’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삶터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반려동물 유모차를 두는 곳도 있어서 신기했다. 이번 국외출장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말피 시립도서관이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곳이었다. 도서관에 미디어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미디어도서관이라는 특색을 입힐 가재울도서관 건립 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것은 도서관 입구에 각국의 언어로 도서관이 쓰여 있었는데, 물론 한글로 쓰인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있었음에도, 한국서적이 꽂혀 있는 서가에는 민망할 정도의 한국 책이 꽂혀 있었다. 한국에서 말피 시립도서관으로



한국을 대표할 책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10여 권 정도의 책밖에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일본 책을 번역한 게 한국 칸에 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게 했다.

주이삭 의원

말뫼 시내를 뚜벅이로 가로지르며 당도한 말뫼시립도서관. 회전문에 ‘도서관’이란 뜻을 가진 전 세계 언어가 적혀 있고 그 중 한글도 들어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 도서관 공간은 우선 구관과 신관의 조화가 참 잘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말뫼대학교와 같이 모든 공간이 한 공기로 통하는 구조였다.

말뫼시립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도서를 빌리고 반납하는 모든 것이 전부 자동화되어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납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있었지만, 빌리는 것까지 자동화되어 있는 모습은 보기 쉽지 않았다. 현지 말뫼시민이 도서를 빌리는 모습, 반납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로그인하고, 책상에 설치된 바코드에 책을 대고 바로 가져가고 넣는 모습에 ‘참 책 읽기 쉽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책이 시민의 삶에 밀접해있는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느껴졌다.

사실 도서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뫼시립도서관에 들어와서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말뫼대학교에서도 이랬다.) 우리나라 남자화장실에서 흔히 보던 ‘소변기’가 전혀 없었다. 나중에 현지 통역사 분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Bo01 주거지구에서 공용화장실 실험을 한 이후 말뫼시민이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한다. 확실히 덴마크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변한지 정말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 주민이 직접 느끼고 난 이후 삶의 변화가 가능하겠다 싶었다.

역시 여기에도 소화기 표시는 내 눈길을 끌었다. 내 눈높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화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서대문구에서 관내 공공기관 소화기 배치부터 꼭 성인 눈높이에 맞게 되도록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말피시립도서관 1층에는 아동관, 2층부터는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맞춤형 공간이 조성되어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동도 아니고 청소년 세대도 아니라 그 사이인 일종의 ‘깁 세대’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북유럽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디테일한 구분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있었는지는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의원들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인데, 바로 X-BOX, PLAY STATION, 닌텐도WII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CD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마저도 도서관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깨닫게 되었다. 하긴, 책만 빌리나. 좋은 것은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뭐라도 기록물이자 공유물건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다. 우리나라에선 ‘도서관’이지만 그 이름을 바꿔야 할 때도 언젠가 올 것이라 생각되었다. ‘문화관’ 정도로?

3. 현장사진





현대 미술관 (Moderna Museet Malmö)

도시재생

- 위 치 : Ola Billgrens plats 2-4, 211 29 Malmö, 스웨덴
- 방문일시 : 2019. 10. 1.(화) 14:30 ~ 16:30
- 이동방법 : 도보(말뫼 시립도서관 → 말뫼 현대미술관)

1. 개 요

기존 군용 훈련시설로 사용되던 장소를 현대미술, 파빌리언, 건축박물관, 전시갤러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용도로 탈바꿈한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의 별관으로서 1901년부터 전기산업이 이루어졌던 공장은 현대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개성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외관은 오래된 건물이나 내부는 현대의 미술관 형태를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현대 감각적인 설치미술이 많았고 토속적 재료와 설치미술이 조화가 되어 있었으나 전시 작품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다. 우리구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 옛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옛 모습을 보존할 가치의 건물이 있다면 옛 건물에 현대적 감각을 입히는 도시재생 사례도 적용해 볼만 하다.

이경선 의원

현대미술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워크숍과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아 보였으며, 실제로도 가족단위 행사가 많다고 한다. 평등의 나라라는 말에 걸맞게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룬 페인트로 저예산으로 미술관을 디자



인하였다.

미술관 밖에는 현대 미술관답게 특색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큰 규모의 미술관은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도 편히 아이들과 가볍게 동네 나들이 하듯이 방문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서대문에도 이런 문화 공간 있다면 참 소소한 행복 나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한국 박물관이나 루브르처럼 거대한 미술관도 있지만 작은 도시의 규모가 작은 미술관도 있다. 새로운 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신축되는 미술관도 있지만 작은 예산으로 예전 건물을 리노베이션해서 쓰는 미술관도 있다. 말피 현대 미술관은 이처럼 작은 도시의 작은 미술관이 어떻게 인상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었다.

미술관 규모는 작지만 순회 전시를 통해 전시 작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은 연간 회원권 같은 정기권을 구입하고 작품이 바뀔때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좋은 미술품 감상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미술관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윤을 확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

차승연 의원

발전기를 돌리던 공장을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곳이었다. 스웨덴에서 만난 살루홀, 말피 시립도서관 구관처럼 옛 건물을 새롭게 활용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도시재생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었다.

현대미술관은 밝은 주황색이 기분을 좋게 해주며 맞추어주었다. 물론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었다. 말피 현대미술관을 보면서 서대문구에도 주민들이 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까운 시내에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많으니, 굳이 서대문구 관내에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



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술관이 애써 찾아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삶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지 않을까?

미술관에는 옛 발전시설도 치우지 않고, 활용하고 있었다. 발전시설이 있던 곳은 아이들이 작품 실습을 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스웨덴에 와서 본 것 중 특이한 건 화장실이었다. 말뫼대학, 시립도서관, 현대미술관 모두 화장실이 남녀공용이었다. 남녀구분이 없으니, 함께 줄을 선다. 그리고 화장실엔 소변기는 없었고, 칸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의 화장실 크기를 넓히는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게 화장창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실 스웨덴도 남녀공용 화장실을 쓴 게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스웨덴 사람들의 만족도는 모르겠지만, 적응이 쉽지는 않았다.

주이삭 의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학급 단위의 교사와 아이들이 참 신나게 미술작품을 보러온 모습이 많았다. 물론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 의원공무출장 팀과 동시간대에 이용하는 관객은 50-60명 정도였는데, 전체 규모에 비춰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란 느낌이었다.

사실 미적 감각이 없다는 생각이 많아 현대미술 내용은 잘 모르고 지나간 시간이었다. 하지만 과거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켜 조성한 곳, 바로 주변 주거공간들 사이에 미술관은 참 눈에 띄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으로 존재감을 뽐어내고 있었다. 기간을 두고 현대미술작품 배치를 리뉴얼하는 모양이었다. 주민 삶 바로 옆에서 예술적 감각을 느끼게끔 구성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서대문구 신촌을 ‘문화’를 필두로 ‘신촌 문화발전소’나 ‘신촌, 파랑고래’를 조성하여 활용하려고 하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문화발전소나 파랑고래에서 주로 공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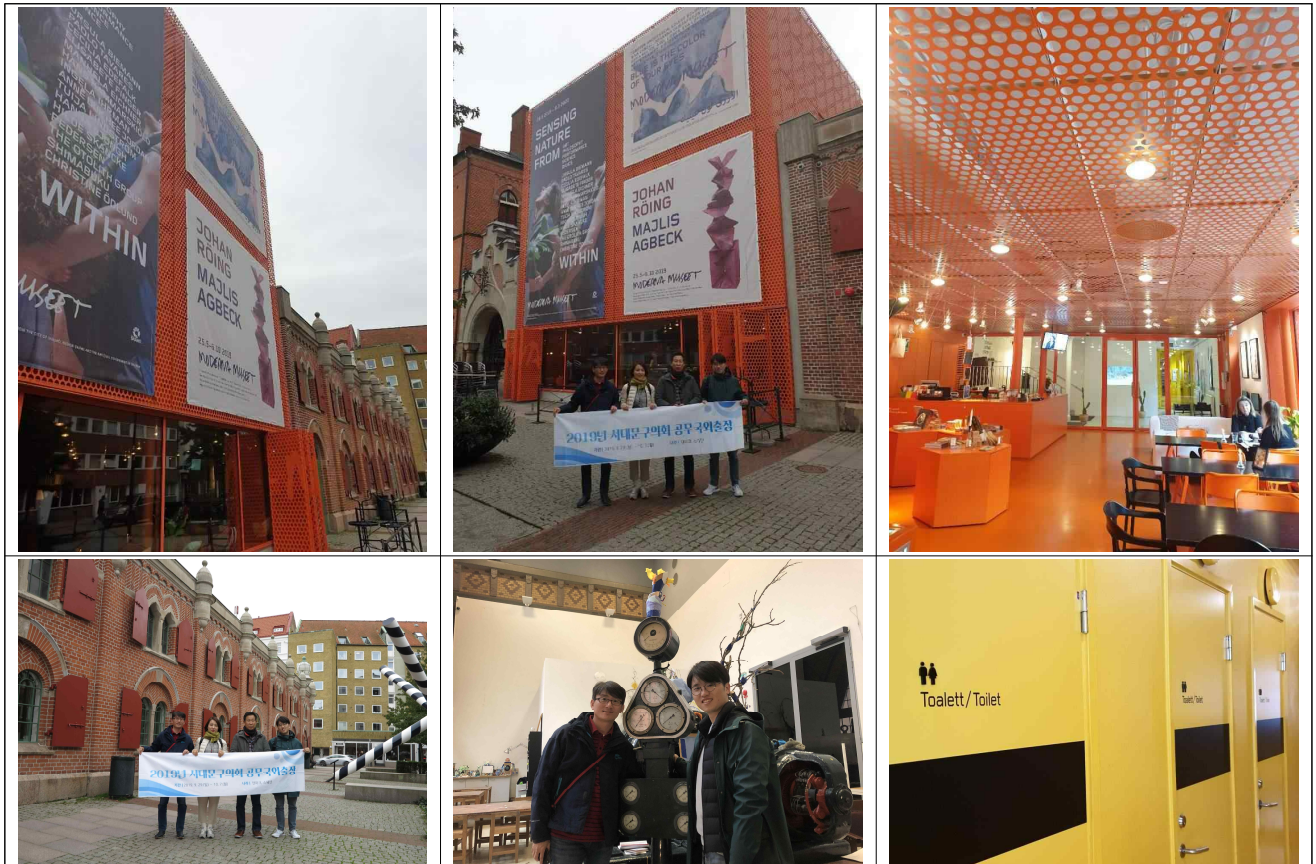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공간을 활용하거나 때론 전체 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특히 지역구인 신촌에서 미적 감각이 뿜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다.

앞서 방문한 시설들과 다르게, ‘재활용 건물’인 이 미술관에서만큼은 우리 서대문구가 기존 건축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무중력지대 무악재의 경우 기존 파출소 건물을 리뉴얼한 예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신촌 건축물 사례는 기존 건물에서는 정책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전부 다 부수고 새로 지은 것이다. 아니 ‘애초에 새로 짓지 않고도 문화를 발전시킬 방법은 없었을까’란 생각마저도 들었다.

3. 현장사진





10.2.(수) 주요일정 및 내용(4일차)

말뫼시청 도시계획과(Malmö Rådhus)

도시재생

- 위 치 : Kompanigatan 5, 211 35 Malmö, 스웨덴
- 방문일시 : 2019. 10. 2.(수) 10:30 ~ 12:00
- 면 담 자 : Lotta Hansson(대외협력관)
- 이동방법 : 전용차량(덴마크 호텔 → 스웨덴 말뫼 도시계획과)

1. 개 요

말뫼는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2002년 말뫼의 자랑이었던 조선소 코콥스가 우리나라 현대에 단돈 1\$에 팔리게 되었다. 스웨덴 국영방송국에서 이 크레인 해체과정을 중계하면서 장송곡을 틀고 주민들이 부둣가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고 한다. 그래서 ‘말뫼의 눈물’이라고 불려진다. 말뫼의 노동자 3만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명도시가 된 스웨덴 말뫼가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도시재생은 아직 진행중이고 현재 말뫼시의 인구는 약 34만 명이고 출생과 이민자로 인해 전년도보다 약 1.7% 증가하였다. 말뫼는 지난 10년 동안 5만명의 주민과 2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1990년 이래로 스톡홀름보다 37% 증가하였다. 말뫼는 스웨덴에서 가장 빠르게 커가고 있는 도시이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2030년까지 100% 탄소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고 2009년 이후 태양력, 수력, 풍력, 바이오 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 친환경 녹색 도시 수립을 장기계획으로 잡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가는 점에서 원전 하나 줄이는데도 찬반 논쟁이 많은 우리나라와 인식 차이가 컸었고 지구온난화가 급속



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환경정책을 시행하겠지만 우리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경선 의원

말뫼시 모든 건축물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안에 해상풍력과 조력발전시설을 조성하여 지구에너지공급시스템과 연계하였다.

말뫼의 친환경 도시라는 명성은 자자하다. 하지만 이곳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공업도시에서 현재 친환경도시로 변화한 사실 때문이지 않나 싶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던 항구도시가 경쟁 악화로 암울한 현실을 겪고 중년의 노동자들이 거닐던 거리를 젊은 학생들과 야심찬 벤처기업인들이 채우게 되었다.

기존의 공업도시에서 벗어나 삶, 교육, 직장,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티 오브 투모로우(City of Tomorrow)’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말뫼시는 스웨덴 최초의 환경친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짧은 시간 내에 극적으로 변신한 말뫼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의 여러 도시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었다. 요즘은 에코시티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말뫼 투어’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니 인상적이었다.

차승연 의원

이번 국외출장의 주제는 ‘도시재생’이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도시재생으로 가장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곳이 바로 ‘스웨덴 말뫼’다.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인 초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한국에 넘기며, ‘말뫼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는 쇠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말뫼는 달라졌다. 말뫼 인구는 34만명 정도고, 평균 연령이 높



라울 정도인 29.5세로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말피는 스웨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말피의 매력에 빠져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말피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연결되는 외레순대교를 개통하면서 성장동력을 다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말피대학을 설립하고, 지구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100%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제로도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말피의 탄소제로 도달율은 90% 정도라고 하니, 놀라울 정도였다. 이를 위해 25m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말피의 인구를 40만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이에 따라 매년 2,000호의 새 주택 공급과 25개의 학교, 50개의 preschool을 설립하려고 한다. 지구별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한 말피는 지구별 주택건설, 일자리 창출, 학교 신설 여부, 교통정책, 에너지 정책 등의 각각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를 서대문구 혹은 서울의 도시재생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피시는 도시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개발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이유는 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3개월 이상 논의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예정단계에서 홈페이지, SNS 등에 도시계획을 30일 동안 공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한다. 이후 30일 동안 수정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미팅을 하면서 주민과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도시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스톡홀름은 주민 80%가 찬성하기도 하지만, ‘운드’ 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말피는 쇠퇴기를 경험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 주민들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한다. 물론 역사적 배경이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췄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말피의 고민은 일자리를 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로 인해 높아진 6%의 실업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숙자 문제도 발생한다고 한다. 조선업이 한창 흥할 때의 그림자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말뫼시청은 말뫼대학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선 깨끗했다. 시청 시설도 관공서보다는 편안한 비즈니스 오피스처럼 느껴졌다. 회의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곳곳에 말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었고, 도시계획을 담은 모형이 인상적이었다. 말뫼의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늘 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었다. 서대문구도 주민들이 자주 찾는 로비에 서대문구가 가고자 하는 미래상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 사진, 모형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주이삭 의원

말뫼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도시계획과를 찾았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라는 명성은 시작부터 특이한 이미지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건물을 중심으로 명암을 구분하여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전체 지역에 대한 맵핑이 가능한 방식이라 인상적이었다.

우선 말뫼시는 2018년말 기준 33만9천명.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은 37%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이주해온 시민이 많아졌다고 한다. 현재 서대문은 최근 10년간 약 33만에서 31만 명으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비교가 되었다. 무엇보다 평균나이가 29.5세(여성 29, 남성 30)라는 말에 이렇게 젊은 도시가 있을 수 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로타 한손(Lotta Hansson)씨는 탄소제로화(carbon neutral), 100%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향후 배치되는 버스는 전부 전기차로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먼 이야기 같은데, 이 도시는 마치 눈앞에 와있는 미래인 것 마냥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60년대에는 주거지역 위주로 개발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도시를 손질 중이라며 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한다. 서울시 역세권 정책이 여기에서 따왔나? 아무튼 이런 개발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땅에 대한 소유가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상황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턱하고 막히게 되었다. 개발 현장에 대해 다양한 현황을 설명했는데, 다음 현장방문에서 느낀 내용에서 함께 언급하는 게 좋겠다.



질의를 했다. 한손은 도시계획을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 같은 일을 추진한다고 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매년 주민들이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관 주도로 결국 추진되어 왔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체 얼마나 의견수렴기간이 있고 방식은 다른지 물어봤다.

한손의 답은 예정 단계에서부터 오프라인은 물론 홈페이지, SNS 등 다른 온라인 창구를 통해 30일 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해서 요청이 있는 모든 민원인과 미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후 다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계획을 공고하여 30일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고 한다. 대부분 이러한 의견을 보내는 사람들이 건축가 등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

도시의 시민들은 내가 살던 장소가 개발이 된다고 할 때 본인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궁금했는데, 애초에 망해가는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시 정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을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보단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적극 참여를 한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관점의 변화는 얻을 수 있었다. 말피시는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기반계획(Value based planning)’을 세우며 지역별 개발을 추진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었다. 우리가 지역을 개발할 때 분명 타당한 의도가 있었겠으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은 결국 집을 주거의 용도보단 부동산(재산)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로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언제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3. 현장사진





창업 인큐베이터 ‘밍크’ (MINC)

도시재생

- 위 치 : Anckargripsgatan 3, 211 19-SE Malmö, 스웨덴
- 방문일시 : 2019. 10. 2.(수) 13:30 ~ 14:30
- 안 내 자 : Anehe Karsson
- 이동방법 : 전용차량(말뫼 도시계획과 → 밍크)

1. 개 요

밍크는 2002년 혁신을 위해 설립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만 건의 말뫼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에 회복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밍크는 스칸디나비아 최초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수백 개의 신생 기업이 Minc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겪었으며 Minc 하우스에 설립된 신생 기업은 Apple의 얼굴 인식 기술 개발에서 기술을 사용하여 파나마 페이퍼를 발견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했다. Malmö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이며, 벤처 캐피탈 증가로 오슬로와 헬싱키를 능가했다.

말뫼는 유럽의 어느 곳보다 많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다.

190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Malmö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국제 도시(런던, NYC 및 워싱턴 DC에 이어)로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 베드이다.

말뫼 지역의 신생 기업은 스톡홀름과 코펜하겐의 기술 대기업 뒤에 만 모든 노르딕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벤처 캐피탈을 모금했다. 말뫼는 베를린에서보다 말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19% 더 저렴하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창업 시스템의 현실화, 차별화된 지원방법,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간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우리구 창업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하여 시설, 운영방법 등을 확인하고 의견 제시가 필요하겠다.

이경선 의원

창업지원 센터로 업종에 제한은 없지만 전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이어야만 하며 밍크에 머문 70%가 창업에 성공하고 그중 20%는 큰 성과를 거둬만큼 효과가 좋다고 한다. 카페와 작업 공간이 함께 결합 된 곳이고 학생이든 신생 기업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서로 윈-윈하면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훌륭한 테스트 베드임에는 분명하며, 이런 형태의 창업혁신 공간이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현재 말피의 실업률은 6~7%대까지 떨어졌고, 인구 절반이 35세 미만인 스웨덴 '최연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금은 첨단 일자리와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외국인들이 말피로 몰려오고 있다. 말피시 관계자는 "조선업을 포기하면서 2만8000여 개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신재생에너지·IT 등 새 산업에 투자하면서 200여 신생기업과 6만 3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과연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 될 수 있을지?' 고민을 안고 시설투어를 마친 날이었다.

차승연 의원

말피는 33,000개의 일터가 있으며, 158,000명이 일하고 있다. 매일 8개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말피로 몰려왔다.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며,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IT영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말피는 청정기술, 방송게임산업, 생명과학, 무역, 관광, 물류 등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본점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인 ‘밍크’는 서부항구에 속하며, 말피중앙역, 말피대학 가까이에 있다. 또한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곳에 ‘미디어 에볼루션’이라는 창업지원센터가 있다. 밍크와 미디어 에볼루션은 화려했던 조선업 영광을 누렸지만, 몰락해버린 코코스 조선소가 있던 자리를 시가 매입하면서 조성된 창업공간이다.

밍크는 100%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에볼루션과 달리, 시 예산 50%와 정부·기업 펀딩 50%로 운영된다. 한번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면 2~3년 동안 머물 수 있다. 첫 6개월은 무료이고, 이후 한 달 3,000크로나(약 42만원)를 낸다. 입주기업 업종은 말피시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와 IT 관련 기업이 주를 이룬다.

우여곡절 끝에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밍크 라운딩을 했다. 밍크에 입주를 희망하는 스페인 여성과 함께 했다. 1층은 공유스페이스였고, 회의공간도 곳곳에 있었다. 회의실 앞에는 사용 일정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밍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창업에 성공해서 나간 입주기업 사진을 포스터처럼 제작해서 계단이나 복도에 부착해 놓은 점이었다. 창업기업에게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입주기업의 롤모델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았다.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인 유진상가는 너무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공유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는 유진상가보다 폐쇄적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공유공간, 회의실이 많지 않다. 마포구보다 비즈니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서대문구에서 밍크와 같은 창업공간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주이삭 의원

그간 가이드 없이도 당당히 현장을 들어가 확인해보았던 우리팀이기에 별 걱정 없이 갔던 밍크에 도착했을 땐 좀 난감했다. 내부를 바로 탐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승연 의원이 그냥 문 열린 것 따라 들어가는 것을 시도했고, 다행히 현장에 있는 밍크 운영지원팀과 접촉할 수 있었다. 마침 일주일에 수요일만 창업을 고민하고 장소를 보기위해 오는 사람들 가이드를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해주는 일정이 맞아떨어져 방문 온 예비창업자(대화는 많이 했어도 이름은 까먹었다)와 함께 ‘구글 번역기와 함께 하는 신나는 기관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내부 입점한 기업들의 주된 사업들 대부분 제조업과는 거리가 멀었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 맞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회의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이 공간을 대여하려면 어플을 활용한 간단한 예약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그만이었다. 시간상 미디어에볼루션은 가보지 못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서대문구에도 유진상가 3층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창업꿈터’라는 곳도 있다. 내부 운영에서 회의실을 더 만들고 간단 예약시스템 등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부족하다면 적용토록 주문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밍크는 무너진 조선소 안에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공간을 조성했다는 점 외에도 이곳을 거쳐 간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벽 곳곳에 기록해두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질문하니 이 사람들 모두 말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우리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큰 현안이 포스트BI의 부재라고 들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한 기업이 서대문구 내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 서대문구 안에서 성장한 기업이 어떻게 서대문구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할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3. 현장사진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
Bo01 지구(Bo01 City of Tomorrow)

도시재생

- 위 치 : Lilla Varvsgatan 14, 211 15 Malmö, 스웨덴
- 방문일시 : 2019. 10. 2.(수) 14:40 ~ 15:30
- 이동방법 : 전용차량(링크 → 터닝토르소, Bo01지구)

1. 개요)

말피는 스웨덴의 항구도시로 한때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의 본사가 있던 곳이다. 조선업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말피는 급격히 조선업의 강자로 나타난 한국과 새로운 조선국가가 성장하면서 코쿰스는 조금씩 쇠락해 갔고 결국 코쿰스의 크레인만 한국으로 넘어왔다.

또한, 코쿰스가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말피의 노동자 3만 명이 빠져 나가 유흥도시가 된 말피가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당시 소수의 시민들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반발을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말피 레팔루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추진력에 시민들이 점점 협조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금씩 도시재생 계획을 준비했다. 수많은 기업의 경영진들과 노동조합 그리고 지방정부가 친환경과 첨단기술 지식 산업을 말피의 성장 배경으로 합의했으며, 인재양성과 청년층 유입 증가를 위해 말피대학교를 건설했다. 대학교 건설로 청년 3만명이 유입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피를 이어주는 8km의 외레순 다리(Oresund Bridge)도 건설했다.

교통의 편의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말피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6만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거기에 친환경 기술산업을 진행하면서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 친환경 주거단지까지 건립했다. 이렇게 친환경과 다양한 첨단기술 산업을 도시재생을 원동력 삼아 말피의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 ‘말피의 눈물’ 때, 말피를 떠났던 시민들이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로 인해 다시금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말피시가 유럽내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Sure)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도시계획(Reseco)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City of tomorrow’이다.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는 지역 건물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원칙으로 한다.

‘City of tomorrow’가 시작되면서 말피는 유럽연합(EU)의 지원과 국가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해안공장지대를 매입하여 1,000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Bo01’ 지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Bo01 지구는 친환경적인 도시재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풍력발전소와 태양전지판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했다.

이때, 새로 건설되거나 기존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판을 설치했으며,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대체 에너지로 만들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주도했다.

말피는 친환경적인 사업들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고, 말피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면서 말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90도로 뒤틀린 건축물의 특수성, 복합 건축물의 최대 작품, 말피를 상징하는 건물로 말피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로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상징적인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상징물을 건축한다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경선 의원

○ 터닝토르소

“말피의 변화”, “말피의 터닝”

주요 외장재는 유리와 알루미늄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로 만들었다. 말피의 변화와 말피의 터닝이다. Bo01 시스템과 연결되어 100%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건물에서 나오는 유기쓰레기는 부엌의 쓰레기 처리 유닛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분해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별도의 관을 통해 말피의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진다. 트위스트 외관이 이상적이었다.

○ Bo01지구

Bo01이 말피 도시재생의 하나의 롤 모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진 만큼 믿음과 신뢰를 보여준 곳이다. 말피시는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태양 풍력 지열 가정 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재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Bo01 전체 지구에 100% 지역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말피시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80년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서대문구도 믿음과 신뢰로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보았다.

말피 시는 Bo01지구 계획 시 신재생 에너지 공급설비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디자인 지침(건축물 방향, 설비설치 지침, 신재생 에너지 공급설비 모듈 설정 등)을 수립하였다.

말피 시의 Bo01지구 재개발은 해안가에 입지한 이전 적지를 재개발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을 100%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현한 사례인 점에서 향후 50년내 고갈될 화석연료 및 우라늄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어떻게 도시계획 및 설계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다.

말피 시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으로 유럽 내 여타 도시들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쾌적한 대기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꼭 정책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

차승연 의원

서부항구(Western Harbour)는 말피의 첫 번째 계획도시다. 특히 탄소제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인 Bo01지구를 만들었다. Bo는 ‘살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용어의 심플함에 놀라기도 했다. 서부항구에서 코펜하겐 공항을



거치지 않고 시내로 직행하는 메트로를 건립하고 있다고 한다.

‘터닝 토르소’는 도시의 쇠퇴로 눈물을 흘렸던 ‘말뚝의 터닝’을 상징하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아래는 호텔로 쓰고, 대부분을 아파트로 사용한다. 그야말로 말뚝의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덴마크에서도 멀리 터닝 토르소가 보일 정도였다.

터닝 토르소에 감탄하면서 들어 선 ‘Bo01’ 지구는 더 놀라게 했다. 바다가 인접한 계획도시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집들이 너무 예뻐고, 각각 디자인이 달랐다. 코펜하겐도 말뚝도 전봇대가 없었는데, 당연히 Bo01지구도 없었다. 이곳은 전통적인 유럽도시보다는 분당이나 파주의 저층주거지 같은 느낌을 주었으나, 곳곳에 탄소제로도시를 추구하는 세심함이 눈의 띄었다.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 프로젝트답게 Bo01지구는 미래도시였다. 지붕은 단지 지붕으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빨아들여 하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저장고에 모아놨다고 조경수로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도 옥상 빗물저금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태양광도 설치해서 낮 동안 모은 전기로 야간 조명을 사용하고, LED 전등도 사용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 준다. 또한 도로를 제한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하였다. 서울시에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된 서대문구는 특히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 물론 새롭게 조성된 도시와 서대문구를 바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부분이 부족한 아파트 일색의 재개발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다니면서 도시의 깨끗함에 놀랐는데, 비결은 쓰레기 처리에 있었다. 보통 집 뒤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무심코 열었던 쓰레기통에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놀랐다. 하나의 쓰레기통 안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칸이 구분되어 있었다. 음식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스웨덴, 덴마크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음식쓰레기마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를 생활에 이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까운 마트에 갔을 때 꼬마가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수거함에 넣고 페트병 수거 값이 기재된 영수증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무엇보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과 아이까지 생활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스웨덴과 덴마크 모두 음료를 사면 페트병 값도 메겨져 있다. 이걸 페트병 수거기계에 넣으면,



페트병 값을 돌려준다. 병도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해봤는데, 어렵지도 않았다.

쓰레기 수거도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저녁에 비닐로 만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그걸 쓰레기차에 한껏 싣는다. 하지만 새벽에 본 덴마크 쓰레기 수거는 박스카로 된 쓰레기 수거차량에 각 가정의 특정지역에서 끌고 온 쓰레기통을 통째로 싣고 가는 것이었다. 우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본 쓰레기 수거 정책도 고려할 지점이다.

주이삭 의원

○ 터닝토르소

터닝토르소는 트위스트 외관 자체도 참 특이했지만, 말피 다른 건축물은 높아도 8층 정도였지만 이곳만 유독 크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싶었다. 이날을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나, 다음 날 코펜하겐에서도 저 멀리 보이는 터닝토르소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볼 때에서야 ‘아, 주변 국가나 도시에서도 말피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만든 건축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체’를 전제로 현대중공업에 1달러로 판 크레인과 조선소가 말피의 눈물이었다면, 터닝토르소는 개혁과 변화의 상징인 ‘말피의 터닝’이었다.

서대문구의 상징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의 근대역사가 살아 숨쉬는 ‘독립문’이다. 그런데 독립문이 서대문에 있음을 아는 타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서대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이 독립문이 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다.

○ Bo01 지구

터닝토르소의 웅장함을 보며 지나치면 새로이 조성한 주택단지인 ‘Bo01 지구’의 초입이 있다. 너무 넓어서 다 돌아다니지 못했다. 참 세련된 현대적인 주택건물의 향연을 보다보면 외레순 다리가 보이는 바닷가로까지 이어진다. 주거지구라 할지라도 어느 길이든 큰 혈관이 있으면 모세혈관이 있듯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사람 몇이 다니는 골목길이 있기 마련이다. 재밌는 지점이라 느낀 것은 새로 지은 주택단지라 할지라도 골목길에 차가 다니질 않을 정도로 걷는 것에 중점을 둔 보도를 조성해냈다. 각 집마다 테라스



가 있고 그 앞에 연못이나 물길이 흐른다. 차가 다니면 욕먹을 정도로 들어 오기 미안할 정도라 느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라 느낀 것은 쓰레기 수거통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지만 서대문은 아니지 않은가. 바닷가에 조성한 공원이나, 예쁜 테라스, 골목길, 예쁜 건물 같은 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참 우연히 눈에 들어온 집집마다 있는 쓰레기 수거통을 열어보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있는 가로세로 4뿔 수준에 주황색 뚜껑의 쓰레기통 안에 ‘종이/재활용/기타’로 나뉘어져있음을 확인했을 때의 함께 확인한 차승연 의원과 나는 탄식을 외쳤다. ‘우리는 남의 집 앞에다 쓰레기 놓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이란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각자 건물 필지 내에 쓰레기수거통을 배치할 공간이 조성되어있었고, 다 바뀌가 달려있었다. 말피시 쓰레기수거요원(공무원인지 우리처럼 대행업체인지 알 수 없음)이 그냥 와서 바로 바뀌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었다. 나중에 숙소에서 새벽 시간에 코펜하겐 쓰레기 수거는 미화원이 건물에 쑥 들어가서 통째로 교체해서 수거해간다. 봉투마다가 아닌 통째로 수거해가면 냄새가 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가 그랬다. ‘아, 왜 우린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은 했는데 ‘추진할 우리 실정에는 적용할 방법이 없었을까?’ 아니, ‘애초에 할 용기는 있었을까?’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나에겐 정말 의미 있는 뚜벅이 경험이었다.

3. 현장사진





10.3.(목) 주요일정 및 내용(5일차)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
(Lille Værloøse Skole)

교 육

- 위 치 : Ryetvej 1, 3500 Værloøse,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3.(목) 10:30 ~ 11:30
- 면 담 자 : Moren Kristiansen(교감)
- 이동방법 : 전용차량(덴마크 호텔 →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

1. 개 요

덴마크 공립학교(folkeskole) 과정은 7세부터 16세까지 10년은 의무교육 기간이다. 학부모는 공립학교·사립학교·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고 무상교육이다. 자녀가 7세가 되면 취학 전 학교 과정으로 1년 동안 0학년이 시작된다.

공립학교의 관리는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책임진다.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가 선출한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덴마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관할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구조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환경 프로젝트 등 각종 프로젝트 시행이 잘되고 있었다. 학교와 지자체의 관계 등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도가 달라 적용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종 학교 시설은 눈여겨 볼만 했다. 자전거 흥미 유발을 위한 시설, 복도에 접이식 책상, 의자, 교실의 책상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학생 중심의 시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선 의원



590명의 학생들과 50명의 선생님들이 머물며 다문화 등 15개 나라의 아이들이 어울려져 있었다. 태어난 배경,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에 임하고 학창시절을 아름다웠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특히 자폐증 아이를 위한 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총 65명의 학생들을 30명의 선생님과 20명의 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었다.

같은 학급의 친구들끼리 서로 어울려 학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따뜻한 학교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면학 분위기가 말로 참 교육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내 시설물도 학생들 활동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덴마크는 자전거의 도시답게 학교내에서도 자전거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학생들의 통행하는 복도에는 자유자재로 토론도 하고 필요시 얼마든지 교실이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접이식 책상이 인상적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분방함 학교의 모습이였다.

차승연 의원

덴마크와 스웨덴 공무국외출장이 결정되고, 사전에 각 나라의 특성을 알려고 책을 구매해서 읽었다. 그 중에서 덴마크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읽고 보니 아동용이었지만, 어른들이 읽기에 편하게 덴마크를 알 수 있도록 한 책이었다.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밀’이라는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코펜하겐을 왕래하면서 정리하였다.

책에서 접한 덴마크 교육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초중과정이 묶여 있고, 담임선생님이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함께 몇 년을 같은 반을 맡는다고 한다. 시험도 고학년이 되어서야 보지만, 비교가 아니라 각자가 필기시험 후 구술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평가는 외부감독관이 한다고 한다.

방문한 ‘틸르 베아뢰스 스콜레’는 덴마크 교육을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교장선생님이 회의로 자리를 비우셔서, ‘모튼 크리스찬슨’ 교감선생님이 학교 소개를 해주셨다. 첫 인상부터 굉장히 젊다고 느껴져서 헤어질 무렵 실례를 무릅쓰고 나이를 여쭙보니 40대 초반이라고 했다. 40대 초반의 교감선생님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교육목표를 들으



니 더 놀랐다. 자립심 고취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첫째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학생들과 대화, 소통하는 교육을 한다고 했다.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다니니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교감선생님에게 이렇게 편하게 다가서는 아이들을 별로 못 봤었기 때문이다.

수업은 8시부터 시작해서 45분 연강을 한 후, 20분 쉬고 2교시를 더 한 후 40분 동안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 3학년까지 방과후 수업이 의무이고,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있어야 하고, 이 시간이 지나야 알아서 하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초중과정을 마치면 고등학교로 가서 2년에서 3년 과정을 거치고, 애프터 스쿨은 본인이 선택한다. 고등학생도 2시 혹은 3시 반이면 하교를 한다고 한다. 물론 선행학습이나 이를 위한 학원은 없다.

덴마크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건 지자체와의 관계 및 행정업무였다. 덴마크는 교육청이 없고, 지자체에서 학교를 관리한다. 공립, 사립, 자율학교가 있어 운영 상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한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사립은 50~70% 정도 지원을 한다. 교육청이 없어서라고 볼 수 없지만, 교사는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는 3명이 도맡아서 한다고 했다. 3명이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업무라는 말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는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볼 필요가 있었다.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를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자전거 프로젝트 수업’ 특화 학교였기 때문이었는데, 워낙 다른 학교들도 자전거 교육은 기본으로 시킨다고 하여 큰 차이를 느낄 순 없었다. 저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때 자전거를 가져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로 흥미유발이 되도록 교육을 한다.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와 연계하여 교육을 하는 학교는 전기자전거 교육을 병행한다.

학교를 둘러볼 때, 마침 쉬는 시간이었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방인을 만나 쑥스러워하면서도 활기찬 아이들을 보고 많은 기운을 얻을 정도였다. 학교 전체가 아이들의 거대한 놀이터였다. 교실도 책을 펼치고, 학습을 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교재를 이용해서 놀면서 배우는 것처럼 보였다.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학교급식에 대해 물으니 각자 도시락을 싸온다는 이야기에는 다소 충격이었다. 스웨덴은 학교급식을 한다고는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었는데, 보통 다른 학교는 없는데, 방문한 학교만 작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신기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자주 접했던,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지표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지속가능도시, 탄소제로도시를 위한 습관과 생각을 배도록 하는 거 같았다.

주이삭 의원

원래 우리에게 학교를 소개해주려던 교장 선생님은 급히 다른 일정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못하고 교감인 크리스찬슨 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간단한 학생과 교사현황을 설명해주고 라운딩을 하며 학교시설과 설비의 취지를 설명해주었고, 학생들과 ‘헬로우’를 외치며 참 훈훈한 기분을 느끼고 왔다.

우리로 치면 중학생까지 계속해서 한 학교를 다니는데, 교사의 구분이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 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돌봄교사로 편성되어 있었다. 말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 점차 덴마크로 유입되는데 현재 아이들은 15개 나라 아이들이 와 있다는데, 크리스찬슨은 우리가 아시아라서 중동아시아인 친구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릴르 베아뢰스 학교는 ‘움직이는 수업’과 ‘선생과 아이간 자연스런 대화(소통)’을 가장 중요시 보는 학교라고 한다. 이 학교에서 교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서, 예산을 따오려고 외부활동에 주로 치중한다고 한다. 교장이 학교의 왕도 아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다른 교사를 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용과 해고가 쉬운 모양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것과는 꽤 비교가 되는 내용이였다. 계약서상 ‘기한’을 정하지도 않는다. 일 잘하면 평생직장이고, 일 못하면 잘리는 노동이 유연한 사회인걸 까먹고 있었다.

이곳에선 교육청이 따로 없다. 지자체와 학교와의 직통구조다. 계속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생길만한 비교거리만 생긴다. 학교 운영에 관해 우리 구의원들의 참견 권한이 없으니 굳이 비교할 일은 아니겠지만.. 비교가 된다. (진짜 시의원들 일 열심히 해야 한다...)

학교행정 처리에 있어 일반 교사들은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없다. 회계처리 등도 전부 전담하는 3인의 행정직원이 해낸다. 우리나라처럼 요구하는 서류가 아마 훨씬 적으리라 본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 외엔 대부분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는 것이고, 학교운영에 관해선 특정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학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사회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통제가 된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꿈과 같은 일만 벌어지고 있나 싶었다.

3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방과후 돌봄을 진행하고 4학년부터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일종의 자립심 고취 차원이다. 우리는 애들 맡길 곳이 없어 학원에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 않은가? 학력중시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을 중시하는 덴마크 방식의 교육이 가능해지려면 50년은 걸리지 않을까란 비관만 몰려온다.

학년마다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5학년이 되면 우리나라같이 숫자나 수학기초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분리수거’다. 아이들이 학령기 전부터 컴퓨터게임(스마트폰 등)을 하니 기존까진 4학년부터 하던 영어교육을 4~5년 전부터는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육을 어느 시기에 할지 정하는 것이야 덴마크 사정이겠으나, 실생활에 필요한 것 위주로 배운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 아니겠는가.

학교정책과는 좀 다른 주제의 생각도 했었다. 학교 아이들로부터 “두유노우 BTS?”를 듣고 왔다. 한류가 북유럽 어느 섬에 있는 도시에까지 전달되는 세상이다. 요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접하는 시대다. 숙소에서 뜬금없이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올 때 어떤 장소를 보러 올까 궁금해져 유튜브를 보니, 대게 여의도 한강, 남산, 종로에 위치한 OO상가와 OO시장 등이다. ‘강남스타일’로 유명해진 곳, ‘젊음’의 상징이 되어버린 홍X 같은 곳이 언급되는 것 빼고 서울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서대문구로 올 이유는 딱히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서대문구는 무엇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 향후 10년 이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서대문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3. 현장사진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Else Marie hjemment)

노인복지

- 위 치 : Kystvej 33, 3050 Humlebæk,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3.(목) 12:30 ~ 14:00
- 면 담 자 : Mai Lund Kirkegaard(원장), Hans Meier Andersen
(정책 컨설턴트)⁸⁾, Anngerd Bache(총괄 실무자)
- 이동방법 : 전용차량(틸르 베아뢰스 스콜레 →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1. 개 요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기반으로 노인 대상으로 개인 집에 있는 것과 같은 돌봄이 가능한 주택으로 비영리 단체이다. Marie Hjemment는 1958년 Rose Marie Rørdam-Holm에 의해 설립되고 6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19개의 Marie Hjemment의 지점이 있고 Else Marie Hjemment도 지점 중 하나이다.

Else Marie Hjemment의 직원은 35명으로 간호를 담당하는 팀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되고 그 외 물리치료사, 발 치료사 및 미용사가 있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은 최대한 노인이 집에서 생활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물품, 가구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 친화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각종 시설도 노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한 건축이 아니더라도 세심한 덴마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우리구에

8) 엘스 마리에머는 마리에머의 한 지점이고 마리에머 전체 정책 컨설턴트임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경선 의원

비영리 사립 요양원으로 사람 중심의 홈 주택 개념이다.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으며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초기에는 노인들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복합 장애인 시설, 즉 치매 노인이 주를 이룬다. 월세 개념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선택에 따라 개인이 부담한다. 공용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약 20% 부담한다. 본인의 니즈에 맞게 본인이 사용했던 가구 등을 가져와서 노인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동안 살던 환경의 연장선 느낌을 준다. 직원은 3교대 시스템으로 운영하였고 자원봉사자들 참여도 높았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이런 시설들이 확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차승연 의원

195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비영리 사립요양원인 마리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엘스 마리엠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시설로 생각해서 운영했으나, 사람에 중점을 둔 홈의 개념으로 운영 방향이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1958년 시작 전 1~2년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스칸디나비아에 확장되는 시기,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한다. 개인 사립요양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노인복지를 추구하다보니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90년대부터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 초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자폐, 장애,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고 한다.

엘스 마리엠어 노인복지주택은 한 방을 혼자서 쓰는 독립된 아파트형이었다. 입소자 중 10명은 지자체에서 할당받아서 입소시킨다고 한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실 수 있으며,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이 딸린 개인공간을 사용한다.



개인공간은 입소 전에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서 친숙하게 쓰도록 하였다. 입소자는 음식, 청소, 빨래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관리비, 운영비용 등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29명이 입소한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에는 32명이 타임 잡, 정규직, 엑스트라로 등으로 일한다고 한다.

본인 재산이나, 가족지원, 소득이 없을 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의학적, 물리적, 정신적 검사를 해서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될 정도로 판단될 때 선정을 한다. 공립이 시설 수가 많지만, 선호는 사립이 높다고 한다.

노인복지주택을 보면서 한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덴마크에서는 중증노인환자는 어떤 돌봄시스템이 있는지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 볼 필요도 느꼈다. 덴마크의 수준 높은 사회복지시스템이 한국에도 빠르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다. 물론 더 높은 경제성장과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충분히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합의를 이루어야겠지만...

주이삭 의원

현지 통역사는 우리에게 이곳이 ‘요양원’ 이라고 설명한다. 보아하니 어르신들 대개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셨다. 우리를 맞이한 마리에머 법인 사무총장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여기는 사립 요양원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요양원과 시설 설비와 추가비용이 드는 서비스 외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한다.

예컨대, 덴마크 직종별 급여나 단체협약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있으니 기관 규모에 따른 급여가 차이가 있을 리 없고, 기본적인 서비스(집세, 전기료 등)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니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서비스(빨래, 청소 등)를 위한 비용으로 얻은 초과수입은 반드시 향후 자체 프로젝트에 대한 재투자에 쓰이도록 법적인 구조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다 지원하니, 빨래나 청소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스러운 점 외엔 입주해있는 어르신들에겐 국립이든



사립이든 별 차이가 없다. 직원들 급여도 다르지 않으니 굳이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하는 사립기관에서 일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국립보단 시설(설비) 자체가 좋은 점, 임직원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편해서 다니는 것뿐 특별한 지속적인 근무 의지를 부여할만한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만큼 노동의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나? 싶었다.

이 기관이 사립이라 특별히 좋은 시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 이라고 하는 개인 재산이 풍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꼭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라고 판정을 받아야만 이 요양시설에 들어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 처럼 돈 있다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같은 치매어르신이라 해도 높은 질의 요양 환경이 제공되는 셈이다. 주거환경은 거주민이 이전에 살던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 인테리어를 최대한 그대로 가져와서 과거의 삶에 가장 가깝게 조성해 두었다. 사람, 집(home)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마리에며 노인복지주택(요양원)은 코펜하겐 외곽에 위치한 곳이다. 우리 서대문구로 치자면 고양시나 파주급인 셈이다. 이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개 2-40대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주를 해왔다고 한다. 일자리인 셈이다. 우리나라 요양기관에는 대부분 퇴직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50대 이상의 여성이 이 직군을 형성하고 있는 점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생각해보았다. 교육, 교통, 주거 등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한 지방에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면, 도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젊은 세대의 지방으로의 이주도 함께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란 아이디어도 생겼다.

3. 현장사진





10.4.(금) 주요일정 및 내용(6일차)

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 (Københavns Kommune)

도시재생

- 위 치 : Njalsgade 13, 2300 København,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4.(금) 10:30 ~ 12:00
- 면 담 자 : Frederik Fenger Petersen(대외협력관)
- 이동방법 : 전용차량(호텔 → 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

1. 개 요

코펜하겐의 교통 수단 중 자전거가 4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자전거 이용은 피크타임에 자동차 이용보다 1km당 4.80DKK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기대수명을 5~6년 늘인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자전거를 타면 30%의 치사율을 줄일 수 있다. 현재 23개 지자체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계속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코펜하겐은 2025년 탄소 제로도시를 계획한다. 에너지 생산을 풍력에너지 등으로 생산하고 에너지 소비는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건물을 리모델링하며 새로 짓는 계획이다. 그리고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하다. 1890년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2005년에는 자동차 도로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했다. 물론 코펜하겐이 평지이고 대중교통도 비싸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게 만들 수도 있지만 처음 코펜하겐에서 자전거를 탔는데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말피뿐만 아니라 코펜하겐도 탄소 제로도시를 지향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경선 의원

“책임있는 도시”, “탄소제로 도시”

“자전거 도시 코펜하겐”, “자전거 도로가 있는 코펜하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빠르고 편하며, 운동도 되고, 교통비가 싸다는 이미지를 어릴 때부터 인지하고 생활한다고 한다. 시 정부가 소유한 공공토지를 정부가 소유하되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이전했다고 80년대말 태어난 도시항만개발공사(By og Havn)가 공기업의 대표적인 예다. 도시항만개발 공사는 공공자산을 민간기업처럼 십분 활용해 수익을 창출했고, 그 돈은 코펜하겐을 재건하는데 긴요하게 쓰였다. 민-관의 장점을 교묘히 접목한 일명 ‘코펜하겐 모델’이 탄생했다고 한다.

재정을 확보한 시 정부는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대규모 기간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바다를 건너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외레순 다리(Øresundsbron)를 지었다. 코펜하겐국제공항(Københavns Lufthavn)을 확장했으며, 지하철 공사도 시작했다.

1993년 겨우 부도를 면하고 중앙정부 손에 휘둘러야 했던 코펜하겐 시는 2008년 <모노클>이 선정한 가장 살만한 도시에 꼽혔다.

‘코펜하겐 모델’은 시장의 작동원리와 효율성을 공공의 이해를 절묘하게 조합했다. 덕분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가 결정한 방향에 궤를 맞추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세금 인상 없이도 기간시설을 확충할 만큼 큰 사업을 진행해낸 코펜하겐 모델은 한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도시라고 본다. 특히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도시라 불릴 만큼 자전거가 인구수보다 많다. 앞서 갔던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에서는 자전거 관련을 수업을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자전거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생활화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차승연 의원

코펜하겐은 ‘책임지는 도시’를 위해 탄소제로 도시, 쓰레기 없는 순환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인 차량 줄이기, 공공기관 사용 자제, 자전거 이용 활



성화 등 교통정책이 눈에 띄기도 했다. 또한 소비 줄이기, 에너지효율화 건물, 라이트 교체, 유기농 키우기, 배수처리 시설 확대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코펜하겐과 말뫼의 도시재생 콘셉트는 비슷한 듯하지만, 도시규모가 차이가 있어서인지 다른 면이 있었다. 두 도시 모두 ‘탄소제로도시’를 향해 정책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나 코펜하겐은 특별히 교통정책이 두드러졌다.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인프라나 이용률이 훨씬 잘 갖춰지고 높았다.

대부분 평지라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니까 코펜하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에서의 교통정책은 더 나아질 수 없는지 고민해 볼 지점이다. 특히 자전거 도로에 있어 코펜하겐은 차도, 보도와 다른 단차를 두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전거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였다.

코펜하겐을 비롯해서 유럽 도시는 전봇대가 없는 것도 놀라운 점이었다. 전봇대는 전부 지중화 되어 있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지하매설된 시설을 연결한다고 한다. 시 담당자는 1950년부터 가로등을 줄여나갔고, 가로등은 인도가 아닌 차도를 비추는 용도라고 한다.

덴마크 역시 도시 미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자동차와 주차문제’라고 해서 도시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졌다.

주이삭 의원

우리에게 코펜하겐시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잘 설명해준 피터센에게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60만의 코펜하겐 시민만 보고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지역에 사는 130만, 말뫼 등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활권까지 포함한 390만의 인구를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코펜하겐 시 도시계획 설명 초입부터 인상적이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서대문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에 대한 고민 이전에 ‘서북권’이라는 은평, 마포구와 함께 있는 생활권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때다. 서대문구의회는 같은 권역 내 의회와의 교류가 없다. 내가 의장이라면 서북권역 구의원들부터 모아 간담회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코펜하겐시의 평균연령은 36세다. 매월 1천명이 유입된다. 코펜하겐시도



역시나 기존 산업의 쇠퇴 이후 4차산업 시대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다보니 대학교 입학과 기업 활동이 증가되었고, 현재 코펜하겐시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시설 확보인 셈이다. 코펜하겐만으론 주거지역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말피와의 외레순 다리가 연결됨에 따라 코펜하겐은 근무지, 말피는 주거지로 활용되는 상황인 것이다.(전적으로 코펜하겐 시 입장임. 말피는 말피 나름대로 산업 활성화에 열일 중.)

〈Co-create Copenhagen 2025〉를 계획한 코펜하겐시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에는 ▲살기에 적합한 도시(A liveable city), ▲책임지는 도시(A responsible city), ▲엣지있는 도시(A city with an edge)가 있다.

피터센이 우리에게 ‘살기에 적합한 도시’에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이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도시’였다. 1890년부터 만든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1960년대 차량 증가세로 주춤하다 1970~80년대에 코펜하겐 시민들의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고 한다. 2005년부터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략적인 ‘월클’ 급 투자가 이어져 현재 전체 시민 중 49%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삼는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가용 27%, 대중교통 18%, 6%가 도보 이용)

자전거를 타야 할 이유로 건강, 비용 등 여러 가지를 홍보하겠지만, 결국 코펜하겐시민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로 꼽은 1위는 ‘빠르고, 쉽고, 편해서 (88%)’다. ‘환경친화적’이란 이유로 타는 사람은 7%에 불과하다. 그만큼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다. 코펜하겐이 전부 평지인 것과 달리 현재의 서울은 경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경이다. 그래서 바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긴 하다.

사실 신촌 차없는 거리는 코펜하겐이 추진하는 방향과 비슷하다. 당장 밀려드는 차량과 도로, 주차장 확보에 우리는 더 신경 쓰지 않나. 최근에 나는 북아현로 차선 개편을 통해 출근길 교통정체를 해결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만약 내가 코펜하겐 시와 같은 방향으로 주장한다면 차선 폭 축소를 더 주장해야 하는 셈이다. 진보적 교통정책은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것이라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다.

아무튼 간에, 코펜하겐시는 자전거 정책을 비롯해서 건물 밖 공간(urban space)에서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를 만드는 정책도 핵심이라 한다. 어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디에 건물을 지을지 의견을 묻기보다 어디를 녹색지대로 하면 좋을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미 1만건 이상 수집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일 아닌가. 학교 담장을 허물어 주민이 이용 가능하게 오픈하는 것은 뭐 흔한 일이다. 시민의 의견으로 녹색지대를 구성하니 나무를 심는 비용은 전부 지자체에서 대는 대신 관리는 시민이 하는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도 눈에 띄었다.

책임지는 도시는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의미한다고 한다. 2025년까지 Carbon neutral capital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유럽국가들이 모두 갖는 책임이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소비 줄이기, 자원낭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선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갖고 코펜하겐 시 정책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에 대한 적응에 중점을 두었는데, 도시가 한때 집중호우로 침수가 된 적이 있었나보다.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자연적인 하수의 흐름을 전면 개편을 단행하여 하수가 모이는 곳을 확실하게 지정했나보다. 그리고 그 지역을 공원화까지 했는데(T-SINGE SQUARE), 이 또한 인상적이었다. 내 지역구 신촌이 작년 홍수로 고생을 했는데, 하수처리 방식에 참고할만한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차, LED전등, 유기농음식 등을 확대하고, 지역난방을 98.6%까지 확대했다고 한다. 특히 지역난방은 더 공부해야 할 분야다. 우리나라는 대개 보일러를 쓰는 개별난방이니 코펜하겐 도시 내 건물엔 대부분 보일러실이 없으니 공간활용도 훨씬 편할 것이다. 아마게르바케에서 멀어질수록 열 손실이 있을진 모르나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춥게 느끼진 않았다.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98.6%나 가능하게 했을까 더 공부할 필요성이 들었다.

3. 현장사진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Boligselskabernes Landsforening)

주거복지

- 위 치 : Sudiestræde 50, 1554, København V,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4.(금) 14:00 ~ 15:30
- 면 담 자 : Liv Jørgensen(정책 컨설턴트)
- 이동방법 : 도보(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 →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1. 개 요

2018년 기준 덴마크 주택은 자가 주택이 49%, 사회주택이 2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중앙정부에서는 임대료 결정, 자금조달,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신규 건설 사업비 약 10%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별도의 기금을 통한 대출보증, 저리·장기 융자 제공,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주택의 운영은 비영리조합에서 운영한다.

또한 덴마크 사회주택의 특징은 저소득층만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1984년 제정된 ‘입주자 민주주의법(Law on Tenants Democracy)’에 의거 입주자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사회주택의 운영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입주자가 거주할 수 있다.

2. 시 사 점

유경선 의원

덴마크에는 509개의 주택조합이 있고 공공사회주택 연합회는 이 주택조합의 연합체이다.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2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저소득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덴마크와 같이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조례이다. 우리구도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경선 의원

덴마크 사회주택이 이렇게 보편적 주거 형태로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다른 나라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세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덴마크에선 사회주택의 입주 자격을 없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가족 단위 입주로 제한되는 일부 큰 규모의 사회주택을 제외하면 규모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에 소득 기준이 없는 곳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서도 덴마크가 유일하다.

둘째, 정해진 입주 기간을 없애 주거 안정성을 높였다. 입주자가 원한다면 한번 들어간 사회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다. 심지어 숨진 뒤에도 함께 산 자식들에게 우선거주권이 부여될 정도다.

셋째, 비용 부담을 없애 가처분 소득을 높였고, 이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입주자가 BL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아 매매계약을 한 뒤 입주한다. 그런데 원금 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입주자가 결정한다. 만일 입주자가 사회주택의 소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 이뤄진 임대료만 내면 되고, 소유를 원한다면 여기에 원금을 더 상환한다. 인근 지역 일반 주거지의 임대료와 견졌을 때 대략 30% 정도 저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차승연 의원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는 비영리조직으로 1853년부터 임대주택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콜레라가 발병하여, 주거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시 외곽에 노동자들을 위해 건설한 게 시초였다.

1908년부터 정부가 정책을 세웠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붐을 일으켜 쭉 진행되고 있다. 원래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건설이 기본이었으나, 저소득층 위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공공사회주택 비중은 21%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정부는 초기 주택건설비용을 대출하고(30년 상환), 지자체는 10% 주택지분을 가진다. 비영리법인인 주택관리조합(하우징 오가니제이션)이 관리를 한다. 급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쿼터를 이용해서 지원해주기도(10%) 한다. 임대주택관리법 주요내용 3가지는 동일한 조건, 소유가 아니므로 세가 합리적인 가격, 입주자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정책은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구조였지만, 단순한 임대주택 사업이 아닌 지역을 바꾸는 도시재생의 한 면으로 보였다. 그래서 주거정책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그 어떤 정책보다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정책으로 생각된다. 향후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이다.

주이삭 의원

시 외곽의 노동자를 위한 건물로 1853년 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1908년부터 정책적인 개입이 진행되다 2차대전 이후부터 붐을 이루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었으나 점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며, 현재 509개의 비영리 사회주택조합이 멤버십을 이루고 있다.

정부(state)는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주택 조합원들이 90%의 지분으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municipality)는 10%의 지분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덴마크 주거시장은 2018년도 기준으로 49%가 개인소유, 21%가 비영리 사회주택, 18%가 렌탈 등을 이루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모델을 두기 위한 세자기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렌트비는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해야 하는 점. 부분적으로 공공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국가건축기금(National Building Fund)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마련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비영리 사회주택은 사회주택에 살고 싶은 다수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들만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저렴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설정하여 30~50년 가까이 살아갈 주거지를 조성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재밌는 건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할 텐데, 88% 가량이 정부의 모기지론이고, 10%가 지자체의 재정,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세입자들(조합원)이 모은 기여금(2%)으로 충당한다. 국가가 주택을 짓는데 거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신의 집은 자신이 마련해야 하는 것과



는 아주 근본 설계부터가 달라 어안이 빙빙했다.

조합원들은 30년 동안 정부가 대준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이자 2.8%를 포함한 돈과 관리비까지 포함한 돈을 월세로 낸다. 뭐 내는 돈의 구성은 이런 것이라 해도, 결국 조합원들은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설계과정에서 각각의 집 규모를 정한 만큼 기본 비용이 정해질 텐데, 모기지론을 빨리 갚거나 관리비를 올리고 내리는 일의 결정은 전부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운영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모기지론을 다 갚은 뒤인 31년차 이후에도 월세는 그대로 주택건축 기금으로 모인다. 전체 조합으로부터 모인 돈인 만큼 규모가 큰데, 이 기금은 향후 주택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 재건축 등에 쓰인다. 이러한 모델을 이미 40~50년 전부터 만들고 운영 중이니, 현재 단계는 이미 주택건축기금을 활용하는 수준이란 것이다.

게다가 기금을 통해 안전하고 웰빙 라이프를, 범죄 예방과 교육 및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정책이다 보니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도 기금과 지자체의 재원(대략 25%)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이어진 사회주택 정책 덕분에 덴마크란 국가는 국민 다수가 주거로 인한 걱정은 없는 모양이다.

서대문구, 서울시,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귀한 기관방문 일정이었다. 지역구인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모두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날 방문한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주거면에서 대안주택으로 여겨질만 했다면, 공공사회주택 연합회에서 알게 된 내용은 특히나 지역에서 만나는 청년세대나 하우스푸어 주민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

3. 현장사진





덴마크 왕립 도서관
(Det Kongelige Bibliotek)

교 육

- 위 치 : Søren Kierkegaards Plads 1, 1221 København K,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4.(금) 16:00 ~ 17:00
- 이동방법 : 도보(호텔 → 덴마크 왕립 도서관)

1. 개요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1648년 국왕 프레데릭 3세가 창설했다. 18세기 말 학문을 연구하는 국립도서관을 겸하게 되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코펜하겐 대학의 도서관을 겸하고 있다. 1906년에 슬로츠홀멘 (Slotsholmen) 섬의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으며, 블랙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신관은 1999년에 완성되었다. 새로운 도서관을 세기말에 지은 것은 21세기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를 당당히 맞이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프랑스가 미테랑 국립도서관을 1995년에, 영국이 대영도서관을 1997년에 새로 지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덴마크 왕립도서관 내부는 시민 친화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구조와는 전혀 판판으로, 입구에서부터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 여왕의 전당이라 불리는 콘서트홀, 전시관 등 파격적인 공간 배치로 시민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신관과 구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신구조화를 훌륭하게 이뤄내고 있다. 구관이 붉은 벽돌을 사용한 대칭적인 건물인 데 반해 신관은 반짝이는 검은 화강암을 사용한 비대칭적 건물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신관과 구관은 3개의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2. 시사점

이경선 의원



블랙다이아몬드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도 중세와 현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것이다. 1906년에 새롭게 지어 사용하던 도서관이 좁아지자 1968년에는 현대식 직육면체 건물을 붙여서 공간을 확보하고 30년이 흐른 뒤에는 길 건너편에 짐바브웨에서 들여온 검은색 화강암과 유리로 세련된 건물을 지어 세 개의 구름다리로 연결시켜 놓았다. 내부는 책만 있는 도서관이 아닌 카페나 레스토랑 전시관 등 여러 문화공간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우리나라도 옛것에 대한 자부심은 지키고 그것을 현대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블랙다이아몬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1층의 카페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인상 깊었다.

차승연 의원

블랙다이아몬드라는 별칭이 있는 덴마크 왕립도서관 신관은 말뚝 시립도서관처럼 구관과 신관을 연결한 공간이었다. 도서관 서점에서 근래에 코펜하겐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설명한 책을 정말 큰 맘 먹고 샀다. 비록 덴마크어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싶었다.

왕립도서관이라 말뚝 시립도서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뭔가 더 도회적이고, 성숙된 느낌이었다. 그래서 말뚝 시립도서관처럼 가족이 찾는 도서관 느낌은 없었다.

구관의 정원에는 키에르 케고르의 동상이 있었다. 정원을 지나서 나가니, ‘크리스티안보르 성’이 있었다. 덴마크 의회 의사당, 총리 관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곳이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도시계획의 중심부에 도시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을 짓게 마련인데, 코펜하겐은 크리스티안보르 성과 왕립도서관을 배치하고 있다. 서대문은 자치구 CI도 독립문을 사용하고 있다. 독립문이 위치적으로 서대문구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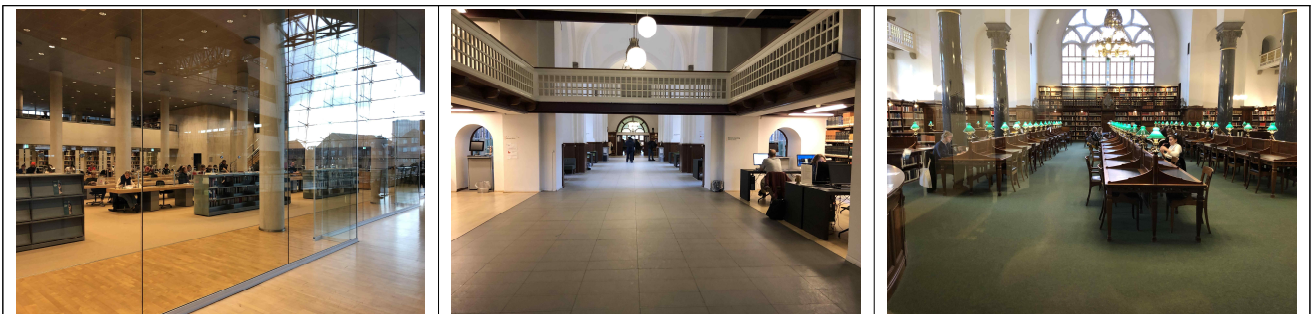
부에 있지 않다보니, 도시계획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어색하긴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상징으로 삼아야 할까?

주이삭 의원

사람들이 지식을 쌓기 전에는 단순한 검은 상자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지식을 쌓고 나누게 되면 다이아몬드처럼 지성이 빛난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검은색 대리석과 유리로 구성된 곳이라 햇빛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는 정보를 먼저 알고 갔지만, 참 흐린 날인데다 구관은 공사를 하고 있어 신-구관 간의 시대를 거스른 절경을 볼 순 없었다.

들어간 층 아래쪽(지하인 모양이다)엔 미술관이, 1층에는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었으며, 로비에는 둥그런 테이블과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1층과 2층 사이 공간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기념품 가게 위쪽에 위치한 공간에는 또 다른 전시관이 숨어있었다.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 같아 깊숙이 들어가서 보진 못했다.) 도서관이라기보다 미술관에 온 느낌이였다. 이곳은 도서관이 ‘책을 소장한 장소’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문화센터로 변모하는 것을 사전 설계했다고 하던데, 이미 1층에서 보이는 곳만 보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 나머지 공간은 사실상 디자인이 세련된 그냥 도서관이자 열람실이었다.

3. 현장사진





10.5.(토) 주요일정 및 내용(7일차)

토르브할렌 시장(Torvehallerne)

도시재생

- 위 치 : Frederiksborggade 21, 1362 KØbenhavn K,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5.(토) 12:30~13:30
- 이동방법 : 자전거(아마게르 바케 → 토르브할렌 시장)

1. 개 요

토르브할렌은 코펜하겐 최대이자 최고로 손꼽히는 푸드 마켓이다. 토르브할렌은 뇌레포트(Nørreport) 역 뒷편 광장에 위치한다. 과거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후미진 공터였다. 저녁이면 마약 딜러들이 모여들어 위험 지역으로 불리웠다. 2011년 토르브할렌이 들어서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가 됐다. 토르브할렌은 유리와 철제로 지어진 2개 건물과 야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팎으로 60개가 넘는 가판대가 들어서 있는데 근교 농장에서 가져온 유기농 채소와 과일, 이른 아침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 덴마크 및 유럽 각지에서 공수한 고급 식료품과 향신료, 치즈와 초콜릿, 와인, 조리 도구 등이다. 차림새만 세련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수준도 높다. 또 작은 음식점들도 자리해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찾는 이들이 많은데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인 스미레브로드(Smørrebrød)를 맛볼 수 있는 식당 앞은 늘 북적이다. 또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식당, 정통 이탈리아 피자 가게를 굽는 식당. 코펜하겐 최고의 커피로 알려진 커피숍 또한 찾을 수 있다.

2. 시 사 점

이경선 의원

“한국 호떡집이 있어서 넘 반가웠던 공간”

젊고 활기찬 감각으로 마켓을 이끄는 상인 중 다수가 젊은이다. 그 이유는 처음 기획할 때부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가게 운영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직업학교로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구조는 블랙 프레임과 유리를 사용해 지어진 두 채의 시장 공간이 외부 채소 마켓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내부와 외부로 분리된 공간들이 연속되는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의도된 것이다.

서대문구의 전통시장도 젊은이와 노련미가 넘치는 기존 상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이런 형태 프로젝트를 접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현재 외국에서 전통적인 한식 예를 들어 부침개, 김치, 불고기같은 음식보다 접밥, 양념치킨같은 한국 음식들이 인기가 좋다. 해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다. 서울에 오는 외국인들을 서대문구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드마켓 형식으로 기획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차승연 의원

덴마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보고 싶어서 숙소 자전거를 빌려 타고, 코펜하겐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다니다 괜찮은 곳이 있어 사진을 찍고 와서 보여주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 ‘토르브할렌 시장’이라고 했다.

시장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2개 동의 유리온실과 같은 곳에 점포가 있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꽃과 생활소품 등도 판매를 했다. 시장 가까운 광장에는 벼룩시장도 열렸다. 저녁에는 조명과 어우러져 굉장히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었고, 낮에 가니 관광객과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토르브할렌 시장에는 호떡을 파는 유명한 한국인 상점도 있었다.

도시재생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본다. 토르브할렌 시장은 근사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광장에 유리온실로 깔끔하게 만들어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더욱 멋진 곳으로 바뀌도록 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뿐 아니라, 요리도 맛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필수코스로 찾는 곳이기도 하다. 요즘 건축 유행인 컨테이너로 만든 공간도 좋지만, 이처럼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도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은 과일이나 채소의 원색이 돋보이도록 먹음직스럽게 배치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도 벤치마킹할 점이라고 본다. 토르브할렌 시장은 신촌 박스퀘어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이름처럼 ‘백련시장’과 같은 곳이 이런 활력을 떨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토르브할렌 시장은 젊은 상인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신선제품 판매로 소비자의 발길을 끄는 것 같았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주이삭 의원

코펜하겐의 주말은 어떨까,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토르브할렌 시장을 방문했다.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동과 그 사이에 펼쳐진 꽃과 벤치가 어우러지는 전통시장. 말피에서 본 살루홀과 마찬가지로 토르브할렌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다.

이 토르브할렌 주변에는 참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주차된 차는 거의 없었고, 자전거 주차장이 몇 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자전거 도시’인 코펜하겐이니까 가능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전통시장이 잘 되려면 교통수단이 바뀌어야 하나. 아니면 콘텐츠가 바뀌어야 하나. 전략에 따른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현재로써는 후자지만, 사실 아직은 결정은 못하겠다.

콘텐츠 측면에서, 토르브할렌은 코펜하겐에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꼭 와야 하는 장소로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다. 한국인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한국인들은 한번씩 찾아오는 모양이다.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 외국인이 함께 장사한다면? 시장을 찾는 손님의 유형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 본다. 그래도 아무 생각이나 던져보면 아이디어가 되고, 어떤 정책 결과물이 될지 모른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니 참 별별 생각을 다해보게 된다.

3. 현장사진





스페르킬렌 공원 (superkilen park)

도시재생

- 위 치 : Nørebrogade 210, 2200 København, 덴마크
- 방문일시 : 2019. 10. 5.(토) 15:00~15:30
- 이동방법 : 버 스(토르브할렌 시장 → 스페르킬렌 공원)
지하철(스페르킬렌 공원 → 호텔)

1. 개요 10)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역 뇌레브로(Nørebro)는 주거지가 형성된 이래 덴마크 노동자가 살았으며, 1960년대에는 파키스탄과 모로코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1980년대부터는 이라크와 이란, 레바논 등에서 난민이 들어와 살았다. 이런 역사 때문에 지금도 뇌레브로에는 이민자와 학생 등 가난한 계층이 주로 살고 있다.

뇌레브로는 도시의 골칫거리 빈민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뇌레브로에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됐다. 이 곳에 방치된 공공부지를 공원으로 정비해 어두운 지역색을 밝히고자 계획했고 뇌레브로 지역을 도심과 연결하는 중요한 두 도로 사이에 750미터 길이로 길게 뻗은 부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건축팀은 공모전을 통해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함께할 팀을 얻고, 주민과 수 차례의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를 반영해 인종의 다양성을 공간에 고스란히 녹여내는 설계안이 만들어졌다. 주변 시설을 반영해 이 공간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각 빨간색, 검은색, 녹색을 입히기로 했고 색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로 지정했다.

이 곳 스페르킬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인 붉은 광장은 주민들이 문화 활동과 운동을 즐기도록 꾸며졌다. 놀이터나 공항 같은 시설의 충격 흡수용 바닥재가 붉은색으로 진하게 물들어 깔렸다.

붉은 광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번에는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하얀 선들이 물결치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도시의 거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이곳은 다양한 나라에서 넘어온 주민들의 문화권을 보여주는 소품으로 꾸며졌다. 아

10) 다문화, 빈민촌에 대처하는 덴마크의 자세 | 작성자 NAKED DENMARK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르헨티나에서 온 바베큐 틀, 모로코에서 온 별 모양 분수, 소피아에서 온 체스 테이블 등이 있다.

스페르킬텐에서 가장 넓은 구역은 녹색 공원으로 산책이나 피크닉을 즐기기에 딱인 넓은 녹지 공원이다.

스페르킬텐이 조성된 덕분에 동서로 분리됐던 이웃이 최단 거리로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이국적인 풍경은 코펜하겐 시민들 뿐 만 아니라 각종 광고주들에게도 매력을 뽐내고 있다. 공원은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남녀노소 공원을 자주 찾는 덕분에 밤에도 이 동네를 걱정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2. 시 사 점

이경선 의원

뇌레브로 구역에 덴마크 노동자, 파키스탄, 모로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이라크, 이란, 레바논 등 난민이 들어와 다문화가 형성되고 가난한 계층이 주로 사는 곳이 된다. 62개국에서 가져온 108개 소품으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이 프로젝트 밭아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한 덕분에 주민은 스페르킬텐을 시 정부가 박아 넣은 눈엣가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만든 공간으로 여기게 됐다. 주민이 공원에 주인 의식을 갖게 한 덕분에 스페르킬텐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공유하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여졌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에 민관의 협치가 중요하고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공간이라 서로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주민참여 회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건축팀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게 됐다. 예전에는 서로 적대적이어서 무서운 동네였던 이곳이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하며 서로에 알아가고 맞춰가며 현재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동네가 됐다는 점이 도시재생이 그저 공간을 재해석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화합에도 큰 이바지를 한다는 것을 봤다.



차승연 의원

이주자 및 난민들이 들어와 살게 된 뇌레브로는 빈민촌 이미지를 바꾸고자 도시재생을 시작하였다. 다문화공원이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그리 불리는지 궁금했는데, 공원에는 각국의 다양한 소품과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세계의 축약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은 설계되어 있었다. 가족단위로 많이 오셔서 즐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양한 놀이시설, 녹지시설도 기다랗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스페르킬렌 공원’의 아쉬움은 말피 시립도서관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 만든 작품이던 시설이던 그 어떤 것도 없었다.

3. 현장사진



10.6.(일)~10.7.(월)

주요일정 및 내용(8~9일차)

☐ 인천 공항으로 이동

경로	편명	출발	도착	좌석
1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AY954	10.6.(일) 13:20	10.6.(일) 15:50	ECONOMY
2 핀란드 헬싱키 → 대한민국 인천	AY041	10.6.(일) 17:30	10.7.(월) 08:20	ECONOMY



IV

기 타

제1차 의원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10. 1.(화) 15:30 ~ 16:30
- 장 소 : 말뚝 현대미술관
- 대 상 : 의원 4명
- 내 용 : 9.29.(일) ~ 10.1.(화) 공무국외출장 결과 공유 등
- ※ 덴마크와 8시간 시차로 우리나라 현지 시간이 너무 늦어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고 10분 가량 영상 촬영함



제2차 의원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10. 4.(금) 09:30 ~ 10:00
- 장 소 : 호텔(숙소) 로비
- 대 상 : 의원 4명
- 내 용 : 10.2.(수) ~ 10.3.(목) 공무국외출장 결과 공유 등
- ※ 주이삭 의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 진행함



□ 파피티엔

코펜하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산업을 개발·육성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파피티엔’을 보러 갔지만, 막상 가보니 엄청난 개편을 약속하는 듯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창업혁신도시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와 서대문구 내 지속가능성 있는 대표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이었지만, 대신 향후 우리가 공무국외출장 시 이러한 에피소드도 생길 수 있겠다는 경험이 되었다.



V

출장후기

유경선 의원

8대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시행하는 국외공무출장이 시작부터 이전에 난항을 겪는다. 여러번 논의 끝에 북미팀과 유럽팀으로 나누어 비슷한 일정으로 출장이 결정됐다.



유럽팀은 인원이 6명으로 전문기관에서 실익이 없는지 반응이 없다. 결국 직접 기획하여 기관방문 코스를 정하고 항공권 발권, 숙소예약, 현지 통역 섭외 등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사전에 방문지 관련 책자를 숙독하고 자료를 검색하는 등 관심분야에 대해 각 의원별로 체크하였다.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8번의 사전미팅을 통하여 7박9일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 없이 진행하는 초행길에 긴장은 되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잘 해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출발하였다. 핀란드 헬싱키 경유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하는데 입국심사 직원의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짧은 영어와 보디랭귀지를 동원하여 우여곡절 끝에 입국심사를 끝내고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였다. 숙소로 가는 기차를 타는 과정에서는 길을 잘못 안내해주어 대형가방을 들고 반대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좌충우돌 첫날을 맞이한다.

숙소는 예산에 맞게 구하다 보니 호텔이라지만 두 명이 쓰기에도 비좁다. 냉장고, 에어컨도 없고 샤워부스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작았다. 나중에 통역에게 물어보니 냉장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를 줄이기 위해 덴마크 호텔 객실에는 냉장고, 에어컨은 없다고 한다.



10월의 덴마크는 반이상 비가 내린다고 한다. 방문지를 답사하는데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한다. 대부분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에게 우산을 써보지만 비바람으로 인해 별 효과가 없다. 어떤 날은 2만보 넘게 걷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옷과 신발이 다 젖기도 하였다.

덴마크는 49%나 되는 자전거 통행을 위해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였고 자연과 조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많은 복지정책,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오랜 시간동안 쇠락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스웨덴 말뫼는 코쿰스 조선소의 매각 이후 인력양성을 위해 말뫼대학교를 설립, 1층에서 최상층인 54층까지 90도로 틀어져 있는 ‘터닝토르소’ 건설,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쇠락한 항구의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이 기억에 남는다.

7박9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모두가 힘차다. 미지를 탐험하는 기분으로 무모하리만큼 진행된 여섯 사람의 기개에 새삼 감사드리며 자연과 더불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친환경정책이 돋보이는 도시를 시찰한 것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경선 의원

그간의 공무국외출장에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과 초선때의 해외연수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8대 첫 국외공무출장은 예전과 다르게 진행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국외연수를 가기로 한 의원들과 함께 모여 초기단계부터 가야할 국가를 선정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주제 정리부터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도서를 읽고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꼭 가봐야 할 국가와 지역, 기관 등을 선정으로 이번 국외연수는 시작되었다.



이번연수에서는 그간 업무보고 또는 각종 간담회, 토론회를 다니면서 말로만 듣던 도시재생과 환경 등 유럽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보며 우리 서대문구에 어떻게 접합을 시켜야 할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다.

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나 말뫼시 도시계획과를 보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벽화를 그리거나 예산 투입으로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모델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도 미세먼지 문제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도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는 문제로 그 건축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아마게르 바케같이 혐오시설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bo01지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선 민간차원에서의 협력과 의식개선이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필수적이다. ‘말뼉의 눈물’ 당시 외레순 다리를 놓음으로써 경제 발전을 꾀한 것도 도시의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 말뼉의 눈물을 말뼉의 터닝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서대문구에도 도시재생에 힘을 쓰고 재개발 현장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두었던 본 의원으로써는 과연 주민들의 생활에 발전을 가져오거나 환경과 문화 증진에 도움이 노력이나 예산 투자만큼 효율이 있었는지 의문이 더 깊어졌고 과연 그동안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한 걸까? 내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이었다.

물론, 친환경과 도시재생은 유럽을 바로 따라 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적 요건들이 다르고, 애초에 사업시작 시 접근 방식 또한 다르고 행정적인 접근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본다.

현재 서대문구의 평균나이는 낮은 편이고 특히,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1인 가구가 많다. 그분들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어반리저, 코펜하겐 빌리지 같은 사례를 보며 서대문구에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살고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은 말뼉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재생도 이렇듯 우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고 싶었던 기관도 있었지만 섭외 등 현실적 문제에 가로막혔던 일도, 공사현장으로 바뀐 현지사정을 모른채 방문을 했던 다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돌아섰던 일정들도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추억이 되었으며, 책이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내가 보며 느낌으로써 우리가 보고자 했던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였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더 상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지면상 다 담아 낼 수 없음을 느끼면서 공무국외출장은 꼭 가기 전 설명회와 다녀와서 보고회를 진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추후 보고회 때 배웠던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전문기관을 동반하지 않고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던 이번 일정이 힘들 수도 있었을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무탈하게 진행 될 수 있었음에 의원들에게 감사하고, 동행한 사무국 유주봉, 김은진 두 분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차승연 의원

‘도시재생’ 정책을 바탕으로 앞서나가는 세계 생태도시인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말뫼를 배우기 위해 다녀온 국외출장은 더 많이 보고, 느끼지 못해 아쉬울 정도였다. 전문기관이 없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다닌 관계로 더 다양한 곳을 다닌 결과는 있지만, 여정의 힘들도 덩으로 따라 왔다.

하지만 후기를 썼던 공간이 알려주는 것보다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더 많았다. 쓰레기 수거방법, 중앙열린공원이나 홍제천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비슷한 3~4개 정도의 운동기구를 하나로 모은 복합운동기구도 주목할 점이였다. 차도와 인도 사이 자전거도로가 충분한 공간을 차지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각 도로마다 높이에 차이를 두어 안전한 자전거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의 자전거도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무인주차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신선했다. 코펜하겐의 명동이라 불리는 쇼핑로도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였다. 특별히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형광 작업복을 모두 입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꼭 시행해야 할 일이다.



가로수 영양 및 물 보충 주머니도 새로웠고, 전신주는 없었다. 가로등 기둥은 없으며, 길 한가운데에 전선으로 연결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곳곳에 녹지대가 있어 삭막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이처럼 프레임 밖에서 실생활의 선진적인 모습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발판삼아 서대문구와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한국적이고, 서대문형의 대안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다.



주이삭 의원

다른 선출직 정치인에 비해 지방의원은 바로 옆 구민의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관과 시간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량을 섭외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뚜벅이’로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새벽시간 코펜하겐시 미화원이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는지부터 늦은 밤 도시의 움직임까지 눈에 담으려 했다.

친환경을 추구하는 도시의 콘셉트에 맞게 자전거를 타며 여기 사는 시민으로의 삶을 경험하려 했다. 출장을 가도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과 접목할만한 지점(꼭 선진사례는 아님)을 찾는데 참 중점을 많이 두었다. 구민이 내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실생활에서 느꼈던 교통, 안전, 쓰레기 정책과 끝엔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는다. 기관과 현장방문에서 느낀 점은 앞서 대부분 언급했으니 그 관련 내용은 후기에서는 생략하겠다.



첫째, 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완전 평지인 코펜하겐이나 말피와 달리 서대문구와 서울시는 오르막이 참 많은 지형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을 추구하는 북유럽국가 도시에 비해 우리가 쉬이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본 의원도 평소 지역구를 다닐 때 가능하면 전동킥보드를 활용하지만, 도로 상황 등 안전상 먼 거리를 가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한다.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다.

작은 땅덩어리에 높게 건물을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왔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이 바로 그렇다.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북아현동에는 1-2, 1-3구역 입주민이 들어와 계시고, 1-1구역 입주가 내년이면 곧 시작된다. 이미 출근길마다 정체되는 북아현로는 내년 8월 이후론 더욱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차량을 줄이거나 도로를 넓히거나,



다른 길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미 전자를 제외한 다른 두 제안을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다. 나름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만약 본 의원이 코펜하겐 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구정질문을 했을까. 아마도 ‘차량을 줄이는’ 정책을 더 포함했을 것이다. 다만 현실 속 괴리감에 입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솔직한 심정이다.

둘째, 생활 속 작은 안전대비는 많이 본받아야겠다 싶었다. 특히 말피에서 느낀 소화전 표식이 인상적이었다. 건물마다 소화기 표식을 무릎 정도 높이에만 부착해둔 것이 아니라 성인 눈높이에도 부착하여 건물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소화기를 찾기 용이했다. 다른 불필요한 표식은 제거하고 안전표식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셋째,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정책도 그랬다. 특히 말피 Bo01지구에서 본 가정용 쓰레기함과 집집마다 그 쓰레기함을 놓을 공간을 구성해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에서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꽤 효용가치가 있으리라 보았다. 코펜하겐에서는 가정집마다 시에서 제작한 쓰레기함을 새벽마다 함 그대로 수거해갔다. 공동주택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함을 축소할 느낌이랄까. 물론 좁은 골목길이 많은 우리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상황에서, 성인 남성이 한아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대안이라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첫 국외출장인 만큼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원들이 초기단계부터 모여 가야할 국가를 먼저 선정하는 것보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주제(콘셉트)부터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을 정리했다. 꼭 가고 싶었던 기관도 있었지만 섭외 등 현실적 제한에 가로막히는 경험도, 공사현장으로 바뀐 현지사정을 모른 상태로 현장방문을 했다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섰던 경험도 모두 소중했다.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게다가 이번 공무출장은 본 의원의 인생에서 첫 대한민국 밖을 경험한 사건이 되었다.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고 국내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온 ‘집돌이’였기에, 그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꼭 국외로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스스로 경험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국외출장 일정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짰다. 그리고 그 결과, 분명 지방의원이 국외출장을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음을 느꼈다. 다만 직접 기획하는 단계부터 배운 내용을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을 당당함이 있을 때 가야겠다고 느꼈다.



유주봉 주무관

공무국외출장은 두 번째입니다. 이전 출장은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적인 성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은 성격부터가 달랐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6명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전문기관에 섭외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에 비해 너무 높은 견적을 제시하여 공무국외출장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으나 ‘전문기관 통하지 않고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4분의 의원님과 2명의 직원은 거의 매주 만나 출장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는 회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 회의를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기관섭외가 완료되지 않고 심사받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독일을 제외한 기관섭외가 완료된 덴마크, 스웨덴만 방문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서를 심사받아 출장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으니 항공편, 숙소, 이동수단 등 직접 알아보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준비할 때도 신경을 썼지만 현장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출장자 모두가 초행길이고 구글 지도에 의존하여 찾아가야만 하니 혹시 길을 잃을까 우려하였으나 대부분 잘 찾아가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보 이동,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이용이 많아 이동에 불편한 점, 현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아 소통 등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에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불평, 불만 한번 안하고 모든 면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준비한 직원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텐데 힘든 기색 한번 없이 진행한 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진 주무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어느 광고 카피처럼,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여러의미로 ‘살아보자’ 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도시를 알아보는 출장이라면 당연히 잠시나마 그 도시(코펜하겐과 말뫼)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여행사나 가이드 없이 출장을 떠나는 6명이 오롯이 계획하고 찾아다녀야 했기에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전투적인 각오도 같이해야 했습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자체가 처음인 저에게는 9일간의 이 특별한 출장이 더욱 큰 숙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담은 의원 4명은 물론 보좌역할을 담당한 저와 유주봉 주임까지 모두가 안고 가야 부분이긴 했습니다.



두달넘게 시시때때로 모여 국외출장을 통해 배우고 싶은걸 의논하고, 그 안에서 찾아가야 할 나라와 도시를 좁히고, 다시 방문할 기관과 세부 간담회를 진행할 담당자 등을 조율하는 과정하다 보니 준비 시간을 늘 촉박하고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기관섭외와 통역 등을 담당해줄 전문가를 찾고 세부 일정을 조절하는 것 역시 수월한건 없었습니다. 다행인건 사전조사 담당분야 외에도 너나 할것없이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떠나기 직전까지 관련 자료를 찾기위해 각종 도서와 구글, 유튜브, 기사 등등을 끝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공항에서 내려 공항기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첫 일정부터 낯선 덴마크어에 치여 이른바 ‘현실직시’ 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6명이 같이 구글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고 버스표를 사고 지하철역을 찾으으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9일간의 출장여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정을 보냈습니다. 코펜하겐과 말뫼의 모든 교통수단을 섭렵하고 비, 바람을 뚫고 하루 2만보 이상을 걸어다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관방문 뿐 아니라 대학생공공주택이나 창업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짧으나마 직접 여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직접 경험하는 출장은 구의원들에게는 더 특별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특정국가나 도시의 성공정책을 직접 보고 배워 서대문구에 적용,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된 일정이었지만 이번 출장을 계기삼아 다음 공무국외출장에서는 더 깊이 그 도시를 살아가는 발전하는 출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붙임1

질 의 응 답

말 피 시 도 시 계 획 과

Q : 말피시가 실업률이 높는데 교육열이 낮아서 전문직 인력 양성이 어려워서인지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실업률이 높은건가요?

A :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력이 아직 많지 않다.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도 많고 예전 조선업에 관련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다른 직종 이직이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말피대학교 학생이 2만5천명되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여 새로 생긴 IT 기업,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률이 높아질 것 같다.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는 취업률과 큰 영향은 없다.

Q : 주거지역 개발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의견수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 사업의 특성, 계획의 종류 등에 따라 주민의견 받는 기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획 예정단계에서 홈페이지에 공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공개를 30일 동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 의견을 기초로 또 수정을 하고 다시 30일 동안 공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

Q : 사업 진행할 때 주민의 몇 퍼센트가 동의해야 진행하나요?

A : 스톡홀름은 80%가 동의해야 하고 말피 인근 룬드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지역마다 동의율이 다른데 말피의 경우 90년대 이후 불경기를 겪어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해 동의률이 높은 편이다. 따로 정해진 동의률은 없다.



Q : 개발계획을 공개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A : 부동산 투자가 안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투자 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어떻게 개발할지를 주민과 논의를 한다. 개발 시 거주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보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

2.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

Q : ‘환경회’라는 학교와 지자체의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가 잘 안되는데 학교와 지자체와 관계가 어떤가요?

A : 덴마크는 직접적으로 지자체와 연관이 많다. 지자체, 국가에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계를 많이 한다.

Q : 이 학교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전거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 우리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전거 장려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주로 날씨가 좋을 때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닌 가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자전거를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약 5년정도 근무하는데 여기는 어느정도 근무하나요?

A : 덴마크도 교대를 나와야 하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한다. 학교위원회가 있어서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교장, 교감도 마찬가지이다.

Q : 선생님은 한번 채용되면 계속 근무하나요?

A : 채용계획서 작성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유지된다.

Q : 선생님이 행정업무를 보나요?

A : 아니오. 행정직 직원이 행정업무를 보고 3명이 근무한다.



Q : 학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 학부모, 교사, 지역 대표 등 보통 7~9명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가 매년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도 개최한다.

Q :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집행, 정산은 하나요?

A : 1년에 한번 회계 감사가 있다.

Q : 학교 급식은 하나요?

A : 덴마크는 무상급식이 없고 도시락을 싸온다.

Q : 영어교육은 언제부터 하나요?

A : 1학년부터 한다. 예전에는 4학년부터 했는데 5년전 교육개혁을 하면서 1학년부터 하고 있다. 제2외국어도 7학년부터 했는데 5학년부터 한다.

Q : 외국어 교육을 당기는 이유가 있나요?

A : 일찍 시작하는 것이 체화가 빨라 정책적으로 바꾸었다.

Q :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A : 8시부터 시작하여 저학년의 경우 2교시 수업하고 20분 휴식, 2교시 수업하고 40분 점심시간, 마지막 1교시 수업을 한다. 고학년은 추가된다. 저학년의 경우 주 30시간 수업이고 고학년은 33시간이다.

Q : 방과후 돌봄은 어떻게 되나요?

A : 3학년까지는 의무이다. 부모님이 미리 오면 갈 수 있지만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다. 4학년부터는 선택이다.

Q : 덴마크 교육의 지향점은?

A : 자립심 고취, 민주시민 교육이다. 실생활 관련 학년별로 테마 교육을 하고 있다.

Q : 학생들의 평가 방법은?

A : 평가방법이 객관적이다. 외부 감독관이 와서 필기시험을 보고 면담을 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여 평가를 한다.



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

Q :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면서 한번에 코펜하겐 전체에 확대하지 않았을텐데 얼마나 걸렸고 시민들의 이동, 교통이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를 했나요?

A :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구간 공사할 때는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Q : 인구가 60만명이고 매월 1천명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유입 요인은?

A : 출생, 학생 유입 등 요인이 있으나 도시화로 인한 대도시로 유입이 가장 크다.

Q : 발표하신 정책들이 덴마크 전체 정책인가요? 코펜하겐 정책인가요?

A :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균형보조금을 통해 국가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Q : 2025년까지 탄소 제로화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정책인가요?

A : 정치인의 결단, 의지에 달려있다. 도시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이슈가 생긴다면 변경될 수도 있다. 현재 약 50% 정도 달성된 상태이다.

Q : 코펜하겐의 가장 큰 과제는?

A : 100년 이상 시장, 의회 다수가 좌파쪽이다. 정권 변경이 되지 않은 이상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만 현재 탄소 제로화 관련 자동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Q : 제미니 레지던스를 갔다 왔는데 민원 등 이해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A :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발자,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덴마크 공공사회 주택조합 연합회

Q :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A : 509개 사회주택조합 회비를 받아서 준다. 사회주택조합 규모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Q : 영구임대를 했는데 개인 사정상 이주를 한다든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다른 사회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면 대기를 하고 주택이 생기면 이사할 수 있다.

Q : 2015년 대비 2018년 사회주택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A :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다른 주택이 늘어나서 감소하였고 전체적인 사회주택 수는 늘어나고 있다.

Q : 사회주택을 신규로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나요?

A : 덴마크는 집, 도로 등 꼭 필요한 것만 짓고 커뮤니티 센터, 학교 등은 지자체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 진다.



붙임2

출장 사진



2019. 9.29.(일) 인천국제공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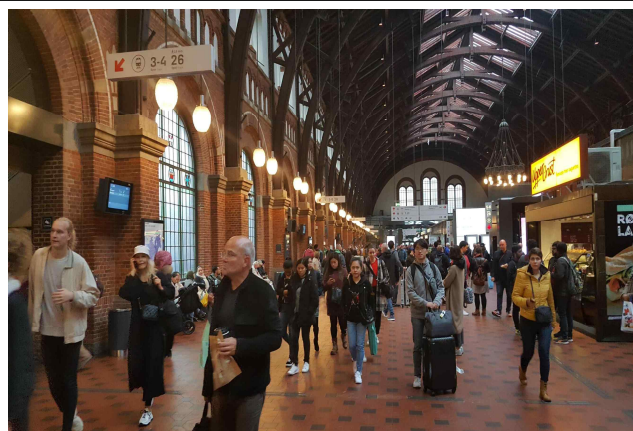
2019. 9.29.(일) 덴마크 공항 도착 비행기 앞



2019. 9.29.(일) 덴마크공항 기차역



2019. 9.29.(일) 코펜하겐 숙소 가는 기차 안



2019. 9.29.(일) 코펜하겐 중앙역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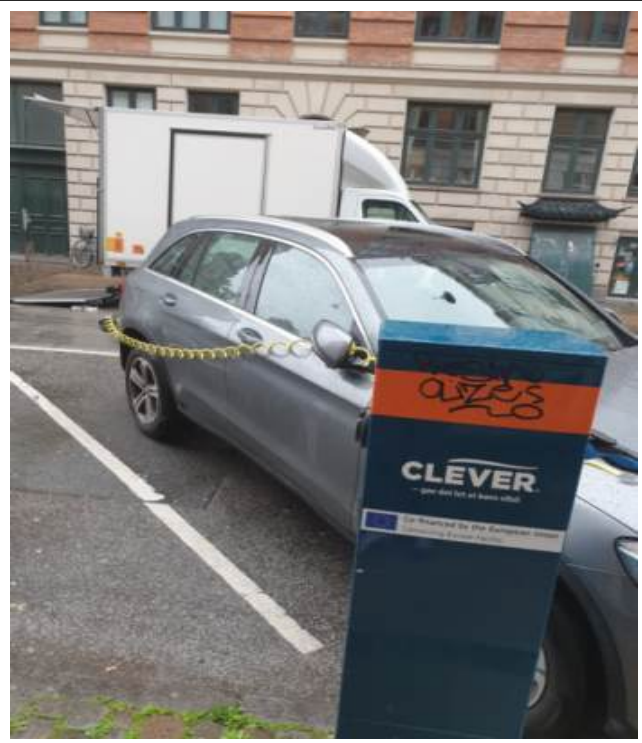


2019. 9.29.(일) 코펜하겐 중앙역 앞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주차요금 징수시설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주차요금 징수시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체육시설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체육시설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2019. 9.30.(월) 도보 이동 중
(자전거전용도로 아래)



2019. 9.30.(월) 제미니 레지던스



2019. 9.30.(월) 제미니 레지던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국외출장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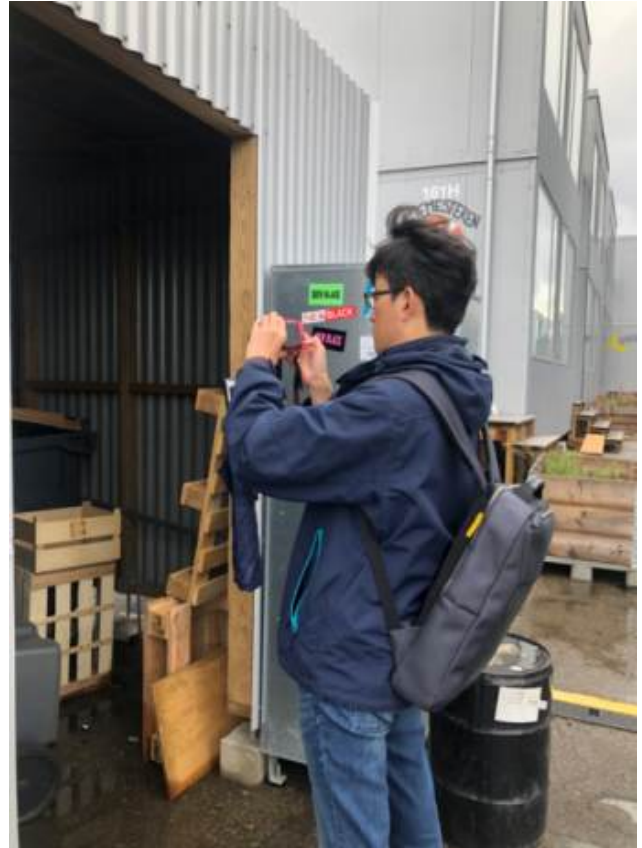
2019. 9.30.(월) 수상버스 안



2019. 9.30.(월) 수상버스 안



2019. 9.30.(월) 코펜하겐 빌리지



2019. 9.30.(월) 코펜하겐 빌리지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9.30.(월) 레펜



2019. 9.30.(월) 레펜



2019. 9.30.(월) 레펜



2019. 9.30.(월) 레펜



2019. 9.30.(월) 아마게르 바케



2019. 9.30.(월) 아마게르 바케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9.30.(월) 아마게르 바케



2019. 9.30.(월) 아마게르 바케 레고모형



2019. 9.30.(월) 아마게르 바케 앞
(수목 물 저장장치)



2019. 9.30.(금) 아마게르 바케 가는 길
(자전거 및 보행도로)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1.(화) 코펜하겐 중앙역앞
(2층 구조의 자전거 보관대)



2019. 10.1.(화) 코펜하겐 중앙역



2019. 10.1.(화) 말피중앙역 앞



2019. 10.1.(화) 말피대학교 앞
버스정류소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국외출장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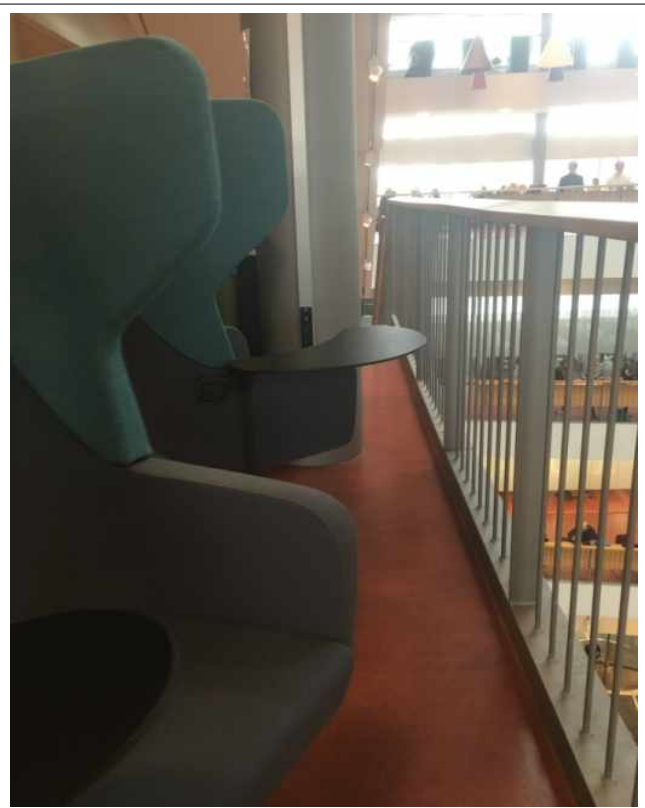
2019. 10.1.(화) 말피대학교



2019. 10.1.(화) 말피대학교
(소화기 및 안내문 위치 확인)



2019. 10.1.(화) 말피대학교
(소화기 및 안내문 위치 확인)



2019. 10.1.(화) 말피대학교 의자 확인
(컵홀더, 접이식 책상, 전기 연결 단자 등)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1.(화) 말뚝대학교
(카드결제 셀프 커피 머신)



2019. 10.1.(화) 말뚝대학교 간담회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앞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유아 도서 열람실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유아 도서 열람실(나무 모양 인테리어)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유아 도서 열람실(나무 모양 인테리어)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유아 도서 열람실(어린이 출입문)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유아 도서 열람실(유아차 보관소)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비디오 게임 CD)



2019. 10.1.(화) 말뚝시립도서관
(만화책)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국외출장 보고



2019. 10.1.(화) 말피시립도서관
(열람실 전경)



2019. 10.1.(화) 말피시립도서관
(편안한 분위기의 열람실)



2019. 10.1.(화) 말피시립도서관
열람실



2019. 10.1.(화) 말피시립도서관
열람실



2019. 10.1.(화) 말피현대미술관 앞



2019. 10.1.(화) 말피현대미술관 전시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1.(화) 말뚝현대미술관 화장실
(남녀 공용)



2019. 10.1.(화) 제1차 의원간담회
(말뚝현대미술관)



2019. 10.1.(화) 제1차 의원간담회
(말뚝현대미술관)



2019. 10.1.(화) 말뚝중앙역 매표 중



2019. 10.1.(화) 말뚝중앙역 승강장
(홍보전광판)



2019. 10.1.(화) 말뚝중앙역 승강장 카드 태그기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1.(화) 말뚝중앙역 승강장



2019. 10.1.(화) 코펜하겐 마트 장보기



2019. 10.2.(수) 말뚝시청 도시계획과



2019. 10.2.(수) 말뚝시청 도시계획과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2.(수) 말뫼시청 도시계획과



2019. 10.2.(수) 말뫼시청 도시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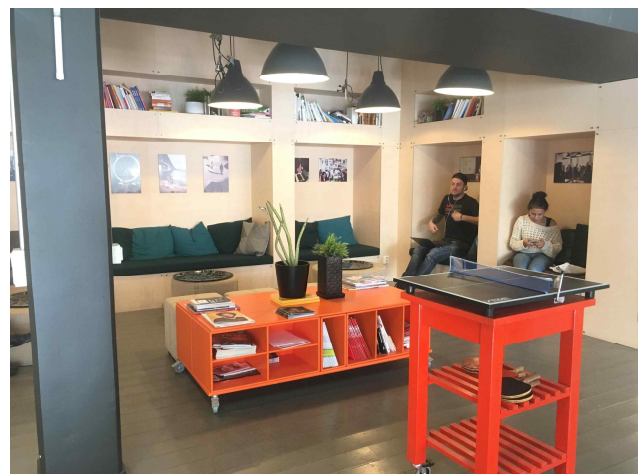
2019. 10.2.(수) 말뫼시청 도시계획과



2019. 10.2.(수) 말뫼시청 도시계획과
(면담자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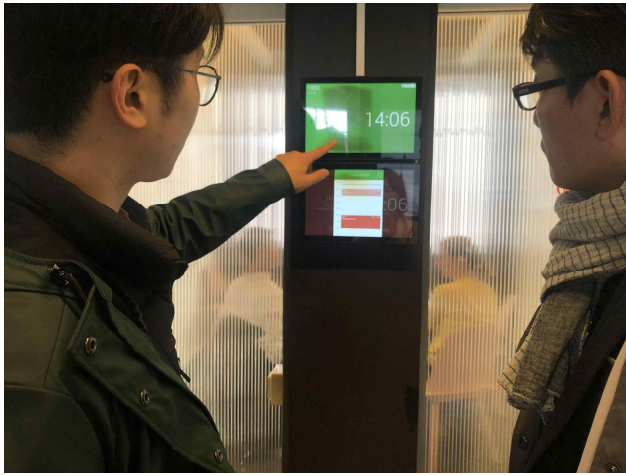


2019. 10.2.(수) 밍크 시설 안내



2019. 10.2.(수) 밍크 휴게시설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2.(수) 밍크 회의실 예약 시스템



2019. 10.2.(수) 밍크 옥상



2019. 10.2.(수) 밍크 옥상



2019. 10.2.(수) 밍크 옥상



2019. 10.2.(수) 밍크 입구



2019. 10.2.(수) 밍크 면담자 명함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2.(수) 밍크



2019. 10.2.(수) 터닝 토르소



2019. 10.2.(수) 터닝 토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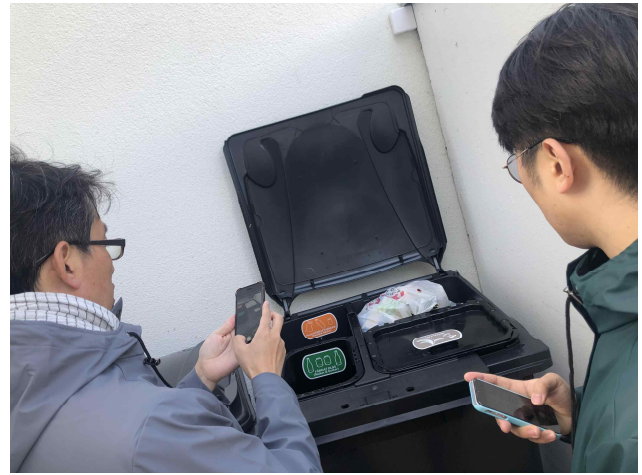


2019. 10.2.(수) 터닝 토르소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2.(수) BO01 지구



2019. 10.2.(수) BO01 지구
(쓰레기통)



2019. 10.2.(수) BO01 지구



2019. 10.3.(목) 릴르 비아레스 스킨레



2019. 10.3.(목) 릴르 비아레스 스킨레



2019. 10.3.(목) 릴르 비아레스 스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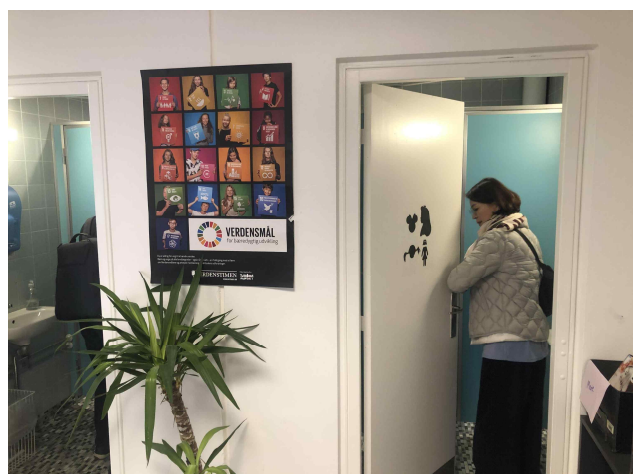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화장실 표시 디자인 확인 등)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복도 접이식 책·걸상)



2019. 10.3.(목) 릴르 뵤아레스 스콜레
(복도 접이식 책·걸상)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면담자 명함)



2019. 10.3.(목) 엘스 마리에머 노인복지주택
(면담자 명함)



2019. 10.4.(금) 제2차 의원 간담회
(호텔 로비)



2019. 10.4.(금) 코펜하겐시청 도시계획과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4.(금) 코펜하겐시청 도시계획과



2019. 10.4.(금) 코펜하겐시청 도시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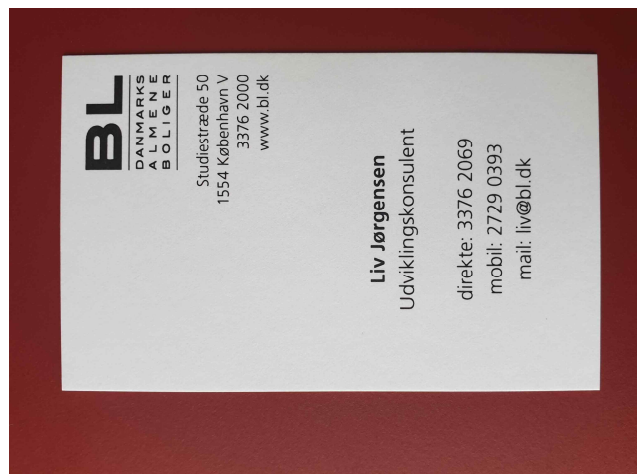
2019. 10.4.(금)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2019. 10.4.(금)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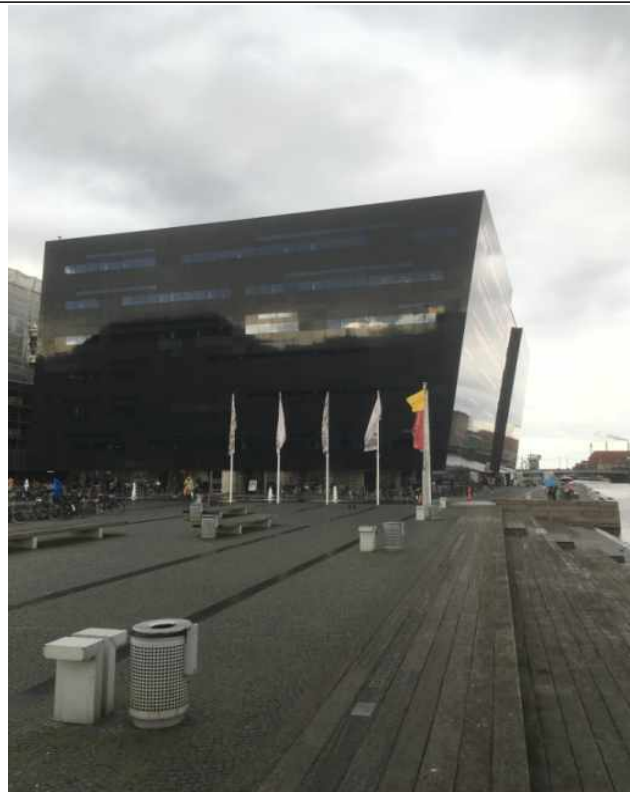


2019. 10.4.(금)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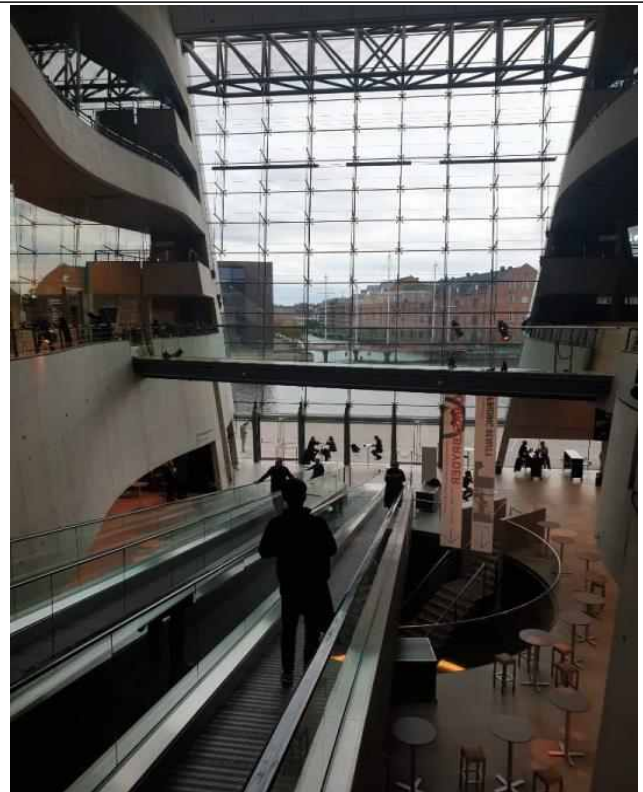


2019. 10.4.(금)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 연합회
(면담자 명함)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4.(금) 덴마크 왕립 도서관
(신관_블랙 다이아몬드)



2019. 10.4.(금) 덴마크 왕립 도서관
(신관_블랙 다이아몬드)



2019. 10.4.(금) 덴마크 왕립 도서관
(구관)



2019. 10.4.(금) 덴마크 왕립 도서관
(구관)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10. 5.(토) 아마게르 바케 가는 길



2019. 10. 5.(토) 아마게르 바케



2019. 10. 5.(토) 아마게르 바케



2019. 10. 5.(토) 아마게르 바케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시장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시장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시장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시장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시장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시장
(한국인 운영 가판점_호떡, 비빔밥 등 판매)



2019. 10. 5.(토) 토르브할렌 앞 프리마켓



2019. 10. 5.(토) 스페르킬렌 가는 버스안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 5.(토) 스페르킬랜 공원(다문화 공원)



2019. 10. 5.(토) 스페르킬랜공원(다문화 공원)



2019. 10. 5.(토) 스페르킬랜 공원(다문화 공원)



2019. 10. 5.(토) 스페르킬랜 공원(다문화 공원)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2019. 10. 5.(토) 스페르킬렌 공원(다문화 공원)



2019. 10. 5.(토) 스페르킬렌 공원(다문화 공원)



2019. 10. 5.(토) 지하철역 앞



2019. 10. 5.(토) 지하철역 승강장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재활용품(패트병, 유리병 등) 수거기계
(코펜하겐 마트 안)



재활용품(패트병, 유리병 등) 수거기계
(코펜하겐 마트 안)



재활용품(패트병, 유리병 등) 수거기계
(코펜하겐 마트 안)



재활용품(패트병, 유리병 등) 수거기계
(코펜하겐 마트 안_현금교환권 발부)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외출장 보고



2019. 9.30.(월) 레펜 쓰레기통	2019. 9.30.(월) 수상버스 정류장 태양열 쓰레기통	2019. 10.1.(화) 말뫼대학교 쓰레기통
2019. 10. 1.(화) 말뫼 공원 쓰레기통	2019. 10. 1.(화) 말뫼 현대미술관 쓰레기통	2019. 10. 2.(수) 말뫼 BO01지구 쓰레기통
2019. 10. 3.(목) 릴르 베이뢰스 스콜레 쓰레기통	2019. 10. 4.(금) 코펜하겐시청 쓰레기통	2019. 10. 4.(금) 코펜하겐시청 쓰레기통